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초등 사회과 교육에서의 비교 지역
관점을 위한 문화경관 이해의 유용성
-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의
사례 비교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과교육전공

강 성 기

2010년 2월

초등 사회과 교육에서의 비교 지역
관점을 위한 문화경관 이해의 유용성
-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의
사례 비교 -

지도교수 오 경 섭
권 정 화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사회과교육)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과교육전공

강 성 기

2010년 2월

강 성 기 의

교육학석사(사회과교육)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강 성 기

2010년 2월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II. 비교학습의 유용성	5
1. 비교문화의 교육적 의의	5
2. 문화경관의 비교를 통한 지역 이해 필요성	10
III. 비교 지역 관점에서 본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	16
1.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의 비교	16
가. 형성배경	17
나. 변화과정	22
다. 오늘날의 모습	31
2. 문화경관으로 보는 지역 이해	34
가. 돌담 경관으로 본 제주	34
나. 보카쥬 경관으로 본 유럽	40
IV. 현행 지역화 교재 내용을 보완하는 학습 내용 구축	47
1. 수업 설계의 방향	47
2. 수업 내용의 구성	48
3. 수업 적용 과정	55
4. 수업 적용 결과	60
V. 결론 및 제언	66

참고문헌	69
ABSTRACT	72
부 록	76



표 목 차

[표 1] 제주도과 한반도의 농기구 대비	18
[표 2]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 형성 배경	23
[표 3]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 형태면 비교	26
[표 4]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 기능면 비교	31
[표 5] 오늘날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	33
[표 6] 수업 주제별 내용 구성	49
[표 7] 수업 학습 지도안 구성	49
[표 8]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50
[표 9] 2·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51
[표 10] 4·5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52
[표 11] 6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53
[표 12] 7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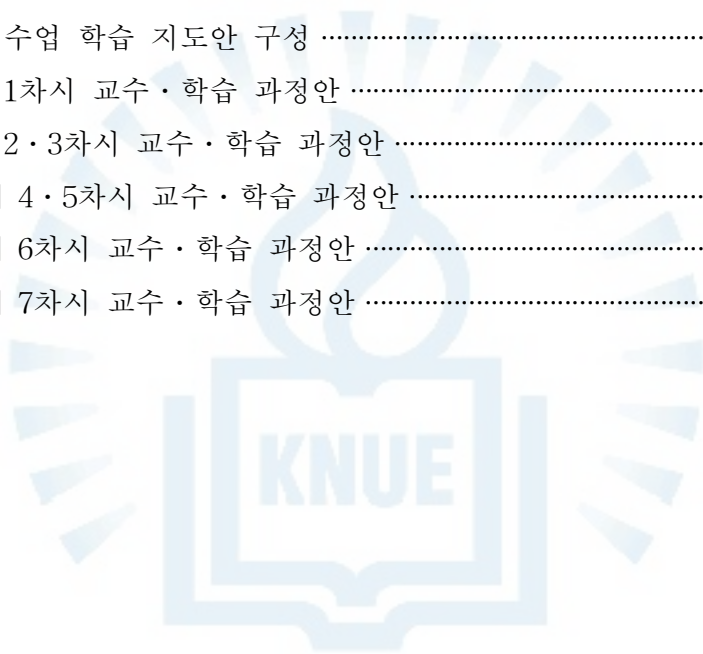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1> 지표 자연환경의 요소 간 상호작용	17
<그림 2> 한반도에서의 제주도 위치	19
<그림 3> 지표기복이 없는 제주도의 모습	21
<그림 4> 제주도의 지질	34
<그림 5> 대정읍 신도리 발담	35
<그림 6> 제주시 애월읍 광지봉 주변 발담	36
<그림 7>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성로동 발담	36
<그림 8> 구좌읍 김녕리 발담	37
<그림 9> 구좌읍 행원리 발담	37
<그림 10> 제주시 내도 발담	38
<그림 11> 한림읍 수원리 구름뜨르 발담	39
<그림 12> 유럽 대륙 서안지역	40
<그림 13> Saint-Christophes-des-Bois 지역	41
<그림 14> 프랑스 보카쥬 경관 - 울타리 안	41
<그림 15> 프랑스 보카쥬 경관 - 하늘에서 본 모습	42
<그림 16> 아일랜드 돌담 경관	43
<그림 17> 레스터셔 킬비(Leicestershire Kilby)	45
<그림 18> 콘월(Cornwall) 곳 근처의 켈트인 마을과 경포	45

논 문 요 약

초등 사회과 교육에서의 비교 지역 관점을 위한 문화경관 이해의 유용성

-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의 사례 비교 -

강 성 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과교육전공

(지도교수 오 경 섭, 권 정 화)

지역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지역을 특징짓는 요소들의 개념을 바르게 알고, 여러 개념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초등 사회과 4학년 지역화 교재를 살펴보면 내용이 연관되지 않고 끊어지며, 어떤 원리에 의한 것보다는 단순한 사실 나열에 치우친 경향이 많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단순한 사실을 나열해 놓은 현행 지역화 교육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의미있게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비교 지역 관점을 제시하고 초등 사회과 지역화 교재에서의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그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지역을 비교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사물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비교'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지역 이해의 기본개념인 위치와 영역에 따라 어떤 지리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각 지역마다 지역성이 잘 드러나는 것 중 하나가 문화경관이다. 문화경관은 자연과 인간이 만나서 만들어낸 가시적·정신적 상호관계를 표상하며, 자연 속에서 인간이 생존해 온 자취를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습할 가치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인 '제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경관인 '돌담 경관'을 선정하였고, 비교 대상으로써 이와 비슷한 모습을 지닌 '유럽 보카쥬 경관'을 통해 학습 요소를 추출하여 교재화 하였다. 교재의 학습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수업에 적용 후 학습자와 참관 교사의 질문지를 분석하여 파악했다.

교재를 활용한 수업에서 학생들은 첫째, 두 경관의 형성배경을 비교하면서 제주도가 '경사가 완만한 화산섬'이라는 사실을 통해 돌이 많은 이유와 '대륙과 대양이 접해 있는 점'을 통해 바람이 많은 이유를 보다 쉽게 이해하였다. 또한 '제주 돌담 경관'이 '유럽 보카쥬 경관'보다 더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든 경관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둘째, 두 경관의 변화과정을 비교하면서 돌담의 모습과 그 역할을 중심으로 알 수 있는 제주의 풍습과 제주 지역 안에서의 지역별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셋째, 오늘날의 두 경관을 비교하면서 '유럽 보카쥬 경관'은 유럽에서 역사적, 경관적, 생태계적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되고 있다. 반면에 '제주 돌담 경관'은 그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농사과정에서 불편함으로 인해 사라져 가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필리핀의 다랭이논'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제주 돌담 경관'이 '다랭이논'과 비교될 만큼의 중요한 문화경관으로서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가졌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돌담에서 알 수 있는 제주의 위치와 영역이 제주 지역에서 보이는 다양한 모습들과의 관계를 통해 제주 지역의 여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두 경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재 내용에 흥미를 나타냈으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만족스러워했다.

비교 지역 관점에 기초한 수업을 한 결과 첫째, 학생들이 제주 지역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학생들에게 제주 돌담은 흔하게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주변의 것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 지역 관점을 통해 일상적인 모습에 대해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돌담 경관'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유럽 보카쥬 경관'과의 비교과정에서 '제주 돌담 경관'이 문화유산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제주 돌담 경관'을 세계적인 시야에서 볼 때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비교 지역 관점을 적용함에 한계점도 있었다. 먼저 학습자들의 용어 이해의 어려움과 비교 대상 지역에 대한 다양한 자료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학생수준에 맞는 연구를 계속해 나간다면 초등 사회과 교육에서 비교 지역 관점이 보다 체계화된 학습 방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비교 지역 관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로부터 시작한다면 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 그리고 세계 지역을 이해하는 안목이 생길 것이다. 또한 이는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부터 시작하여 중학교·고등학교·대학에 이르기까지 수준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10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사회과교육)학위 논문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행 초등 사회과 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가 행정구역단위에 의존한 체계적인 정보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에 대한 학습으로서 내용이 연관되지 않고, 어떤 원리에 의한 것보다는 단순한 사실 나열에 치우친 경향이 많다. 이런 점들은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사실 위주의 많은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지역화 교과서(4학년 1학기)를 보면 학습 내용이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여 암기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다. '문화재의 특징'이라는 주제에서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서 돌을 이용한 문화재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통해 자연을 이용한 조상들의 지혜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자연환경인지, 왜 돌로 된 문화재가 많은지에 대한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그리고 '제주도 특산물'에 대한 내용에서는 숨은 그림 찾기를 통해서 특산물을 찾는 정도이지 이런 특산물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런 식의 지역화 교과서라면 사회과는 단순히 나열된 사실을 암기하는 과목으로 인식하기가 쉽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사회과에서 단순한 사실을 나열해 놓은 현행 지역화 교육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의미있게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비교 지역 관점'이다.

지역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지역을 특징짓는 요소들의 개념을 바르게 알고, 여러 개념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을 비교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사물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비교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공통

점과 차이점을 통해 지역 이해의 기본개념인 위치와 영역에 따라 어떤 지리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비교방법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풍부하게 해주며 일종의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충족시켜주어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즉, 지역을 학습함에 있어 여러 지역 중 의미있는 곳을 선정해서 서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대상지역의 지역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 비교방법이 효과적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그 지역의 위치와 영역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문화유산¹⁾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역별로 유사한 문화유산을 비교해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은 굉장히 다양하다. 최근 들어 일반 서민들이 생활 속에 배어있는 보통성을 독특한 문화유산적 가치로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화경관이다. 문화경관은 자연과 인간이 만나서 만들어낸 가시적·정신적 상호관계를 표상하며, 자연 속에서 인간이 생존해 온 자취를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습할 가치가 있다.

제주도의 문화경관에는 오름 주변에 자연과 어우러져 산재한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산담의 모습, 취락경관으로 초가집과 올레길, 해안가에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취락들과 원담들, 그리고 밭들을 둘러싸고 있는 밭담 등이 있다. 이 중 본 연구자는 밭들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돌담 경관이야말로 제주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적응하면서 만들어낸 대표적인 문화경관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볼 수 있는 돌담 경관이 드물기 때문이다. 유

1) 문화유산에는 역사·예술·과학 분야에서 고고학적이고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비명(碑銘)·동굴·건축물·조각·그림 등과 같은 유적, 건축술과 관련해 역사·과학·예술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독립적 건축물, 인간이나 인간과 자연의 공동 노력으로 생겨나 역사적·심미적·민족학적·인류학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장소 등이 이에 속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라시아 대륙을 두고 서쪽 끝에서 볼 수 있는 유럽 보카쥬(Bocage)²⁾ 경관도 제주 돌담 경관처럼 토지를 분할해서 경계를 만든 지 오래되었으며, 첨단기술이 발달한 현재에도 유지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은 비교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더욱이 유럽 보카쥬 경관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별로 법으로 파괴를 금하고 있는 반면, 제주 돌담 경관은 너무 흔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경관인 돌담 경관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를 통해서 첫째, 지역 이해 교육에서 비교 지역 관점이 중요성을 확인하고 둘째, 학습자들에게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안목과 시야를 갖게 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지역을 이해함에 있어 지역 내에서 한발 물러서서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좀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지역 학습방법으로 비교 지역 학습의 의미와 중요성을 논의한다.

비교 지역 학습은 여러 지역 중 의미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자는 제주지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경관인 돌담 경관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를 이해하는 내용을 구축, 현행 지역화 교재의 내용을 교사 입장에서 재구성, 실제 수업과 평가를 통해 의도한 목표의 타당성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개방경관(샹파뉴-Champagne)과 대조적인 경관으로 비개방적, 폐쇄적이기 때문에 enclosed field, champs enclos, Heckenlandschaft라고함. 특히 유럽에서는 대서양 연안쪽에 이를수록 보편적으로 넓게 나타남. 경작지를 돌담으로 에워싸거나 생울타리로 에워싼 불규칙하고 큰 규모의 경지로서 취락은 산촌이나 소촌형태로 나타남. [농업지리학 (형기주, 2000)]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비교학습의 유용성

비교지역학습의 의의를 선행연구 중심으로 타당성을 논하고, 특히 지역 이해에 있어 지역의 문화유산 중 최근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문화경관을 중심으로 비교학습의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의 비교를 통한 지역 이해

이 부분은 제주 돌담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의 형성배경, 경관 변화 과정, 오늘날의 모습을 기준으로 지역 이해의 기초가 되는 위치와 영역과 관련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의 자료는 실제 답사와 향토사를 연구하는 분들의 인터뷰 및 제주 지방 일간지를 참고하였고, 외국의 자료는 다양한 참고문헌들을 인용하였다.

다. 현행 지역화 교재 내용을 보완하는 학습 내용 구축

이 부분은 연구의 의도를 실질적으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 요소들을 추출하여 구성한 부분이다. 단순한 사실을 중심으로 나열한 현행 지역화 교과서의 학습 내용을 비교 지역 관점에서 총 7차시 분량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라. 실제 수업에 적용 및 평가

이 부분은 학습교재를 가지고 실제 수업에 적용한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 내용에 해당된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수업 전과 수업 후의 반응과 참관교사의 반응을 질문지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지역을 이해함에 있어 비교 지역 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비교학습의 유용성

1. 비교문화의 교육적 의의

비교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이다. 논리학에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공통점, 차이점 따위를 밝히는 일을 의미한다. 즉, 비교는 사물이나 현상들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등을 찾아내어 각각의 특징을 깊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내게 한다.

비교연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모든 사회현상, 문화현상, 자연현상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 유기적인 복합적 전체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즉, 비교연구는 사고의 틀을 확대시킬 수 있고 귀납적인 추론을 가능케 하며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케 할 수 있는 교차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다른 영역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확인시켜 일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J. Farrell은 비교연구를 하지 않고는 교육에서 과학적 이론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³⁾

또한 과학적인 행위와 비과학적인 행위를 구별하는 특성 중 하나가 바로 비교방법의 사용 유무이다. 과학은 비교의 방법을 사용한다. 비교하는 자료들은 가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⁴⁾

비교연구방법은 비교철학, 비교해부학, 비교정치학, 비교예술학, 비교언어학, 비교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교육학에서는 교육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사회학에서는 사회현상들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

3) 최정웅외 6명, 1995, 비교교육발전론, 교육과학사, pp3~4.

4) 권이중, 2005, 비교교육론, 한국학술정보(주), pp9~14.

해, 민속학에서는 민속 문화적 특징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각각의 학문마다 '비교'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다르나, 학문마다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비교를 활용하는 방식은 지역의 특성 및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추구할 때도 사용될 수 있다. 지역을 비교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한 발 물러나서 타 지역과 비교를 해 본다는 뜻이다. 한 지역의 특성은 다른 지역과 대비해 볼 때 더 잘 드러난다. 즉, 각 지역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통해 지역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지역들을 서로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두 지역의 핵심 주제를 나란히 놓고 그것들을 서로 견주어 보는 것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게 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 그리고 지리학에서는 일반적이긴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이해되기 어려운 형식적인 진술에 비하여, 비교는 더 깊은 이해를 유도해낸다.⁵⁾

비교학습은 우리 주변의 사물이나 현상, 지역에 대해 나열된 사실을 단순히 하게 학습하는 것이 아닌 비교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해서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연결함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통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 주는 체계적인 학습방법이다.

지역이라는 공간은 시·공간적으로 아주 많은 요소들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유기적인 복합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을 학습함에 있어 비교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관계설정을 떠나서 지역을 학습한다면 지역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은 지역 이해에서 비교학습 필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류제명(1996)은 지역이라는 공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곳에 들어있는 사실들을 모두 열거하여 알고 있다고 하여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5) McMurry, C., 1922, Special Method in Geography, The Macmillan company.

지 않는다고 했다. 한 예로 중부지방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지형, 기후, 자원, 산업, 인구, 촌락, 도시 등의 주제에 대한 정보를 합한다고 하여 중부지방의 지역성이 잘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지역정보를 사전식으로 나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전식으로 지역정보를 나열하는 학습 방법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대상 지역의 지역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⁶⁾

2007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지역을 행정구역 단위의 의미를 넘어 탄력적 환경확대법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면서 지역을 부분에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하지 않은 타 지역에 대한 학습에서 자신이 속한 지역과의 차별성과 관련성을 발견하고 지역의 이해가 세계의 이해로 확대될 수 있는 개방적인 틀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⁷⁾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 지역을 비교하는 방법은 과거 여러 지리학자들에 의해서도 사용되어왔다.

‘비교 방법론(comparative method)’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Humbolt와 Ritter이며, 이후 지역의 차이에 관심을 두었던 Hettner나 Hartshorne도 지역 비교를 강조한다. Humbolt와 Ritter는 각각 근대 계통 지리학과 지역 지리학의 기초자로, 지역들 간의 일반적 관계 또는 개별 지역에서 고유한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해 비교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Hartshorne은 장소 또는 지역들의 개별성 또는 고유성을 규명하기 위해 지역 간 비교를 강조하였다. Hartshorne은 “만약에 광범위하게 분리된 지역들이 어느 요소들이나 요소-합체들의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면 그

6) 류제명, 1996, 지리교육내용의 계열적 조직 방안에 대한 연구, 지리·환경교육, 제6권 제2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7) 남상준, 2005,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쟁점 및 방향,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공청회,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것들은 같은 유형으로 분리될 것이고, 그러한 유사성들이나 차이점들의 비교는 각 분리된 지역들 내에서의 제 현상을 해석하는데 관심을 두는 우리에게 좋은 연구 대상을 제공해 준다.”고 지역 간 비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는 “지리학은 지표의 지역적 상이성을 연구하는 것으로, 한 지역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대조에 관심을 갖게 된다.”⁸⁾고 하였다.

지역사례의 비교연구로서 대표적인 사례는 이규원(2003)의 논문과 김보영(2008)의 논문이 있다.

먼저 이규원(2003)은 지리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외울 것이 많고 내용이 복잡한 것이 지리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개념이나 핵심 내용이 아닌 사실 위주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비교’방법이다. 이규원은 먼저 지역 사례 비교 방식에서 기존의 문헌자료와 지역 사례들을 비교하는 방식의 적용에서 외국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조사하여 지역 사례 비교 중심의 지리 수업 방안을 고안했다. 수업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 교과서에서 지역 사례 비교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지리교과 기후단원을 설정하여 실험수업의 효과를 성취도 평가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지역 사례 비교 중심의 수업이 학습 효과가 높았으며 학생들에게 낯선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다룰 때에는 학생들의 사적(私的)지리와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차원에서 내용 구성 방식으로 지역 사례들을 비교하는 방식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김보영(2008)도 교과서의 내용이 학습자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사실들이 학습자에게 있어서는 의미를 갖지 못한 채 교육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는 점에 착안해서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학습내용을 심어주기 위해 제시한 것이 ‘비교’방법이다. 김보영은 학습자들이 세계적인 안목과 시야를 갖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리 학습의 방법으로서 지역 사례 비교 학습을 제시하

8) Hartshorne, R., (한국지리연구회 역), 1998, 지리학의 본질, 믿음사. (1939, The Nature of Geography,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고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에서의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그 효과를 검증했다. 김보영은 '기후'가 아닌 '제주도'라는 지역에 대한 이해로 제주도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인문환경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봄으로써 학생들에게 제주지역을 이해하는 데 학습효과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업의 재구성 차원을 넘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차원에서의 지역 사례 비교에 대한 내용 구성 방식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지역을 비교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현상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즉 지역비교에서 문화는 비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세기 비교에 있어 서로 '다름'에 중점을 두어왔다면 20세기에 들어와서 인류학을 중심으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해 내는 과정이 비교 논리 근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특수성만을 밝히려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특수성을 전제로 하여 보편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Goodenough(1970)⁹⁾는 "인류학에서의 비교라는 것은 하나의 명제를 검증하거나 시도해 보는 안목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비교라는 문제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점은 바로 '안목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교문화적인 상황에서 설정된 인간의 인식현상은 내관과 외관으로 이분법적인 병렬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안목들은 기능이라는 메카니즘에 의해서 연속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에서 내관적 실체가 외관적 개념에 동일시되는 까닭은 바로 기능이라는 점에서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능이라는 메카니즘이 개입된 상태의 비교라는 것은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에서 엄밀성이 추구된 직접비교일 수 없기 때문에 인류학에서의 비교라는 것은 '기능적 상사(相似)'¹⁰⁾ (두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속성만 언급하는 긍정적 상사)의 수준

9) Goodenough, Ward H, 1970, Description and Comparison in Cultural Anthropology, Chicago: Aldine.

10) functional analogues. 기원이 서로 다른 구조들의 외관 및 기능이 유사한 현상. 예를 들면 파리·나방·새의 날개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했지만 비행이라는 공통기능을 갖도록 적응했으므로 이것을 상사성이라 한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으로 만족해야 한다.¹¹⁾”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

Levstik과 Tyson(2008)은 최근 지리학에서 사회·문화적 모습을 보여주는 경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반면 지리교육에서는 이런 논의가 별로 없다며 경관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¹²⁾

즉, 비교문화란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화현상들 간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동시에 보며, 유사성이 존재하는 각 지역의 문화현상을 기능적 상사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비교문화의 교육적 의의는 지역문화에 대한 단순한 사실을 나열해서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별로 비교가치가 있는 문화현상들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왜 이런 점은 비슷하고 저런 점은 다른가에 대한 사고를 하게 만듦으로써 지역 이해의 중요한 개념인 위치와 영역에 대해 알고, 더 나아가 다른 지역 이해에 도움이 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문화경관의 비교를 통한 지역 이해의 필요성

경관¹³⁾이란 보통 풍경이나 경치를 의미하며, 지리학에서는 “그 외관 및 그곳에서의 현상들 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또 내부적·외부적 위치관계에 의해 주변공간과는 확실히 식별되는 일정한 특징을 갖는 있는 지표의 한 구획”으로 정의되고 있다.¹⁴⁾

경관은 크게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으로 구분된다. 자연경관은 현재의 기후를 기초로 모든 문화를 배제한 무기적·유기적 자연력만이 작용한다고 생각한 경우의 가상적 경관을 의미하며, 인간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11) 전경수, 1993, 비교의 개념과 문화비교의 적정수준-서설적 검토, 비교문화연구, 창간호,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12) Linda S. Levstik 외 1명, 2008, Handbook of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Routledge.

13) 최근 들어 경관이란 말을 풍경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14) 나카무라 카즈오 외2명, 2001, 지역과 경관, 선학사, p56.

생각할 수 있는 경관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문화경관은 인류의 탄생 이래 인간과 자연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경관이다. 문화경관의 모습은 비행기에서 보면 가장 잘 느낄 수 있다. 사막에 도로가 건설되고, 삼림지대에 농지가 조성되고, 하천이나 해안도 유로변경이나 매립에 의해 크게 변화해 왔다. 거대한 도시가 생겨나고 농촌지역의 토지구획이나 토지이용도 크게 변모해 왔다. 이런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문화경관은 자연환경이나 문화차이를 반영하므로 각 지역의 위치와 영역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조건이 같은 때 유사한 경관이 출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표면적으로 달라도 형성의 매커니즘은 같은 원리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문화경관의 연구에는 특히 취락, 토지이용, 토지구분방법, 유형문화가 중심적 연구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 중 경관연구에 관한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것인 바로 농촌경관이다. 농촌경관을 통해 그 지역의 자연, 경제나 문화·사회적 특징, 개발된 시대나 지역의 진행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20세기 프랑스 환경철학자 Augustin Berque(2001)는 경관의 개념이 모든 시대 모든 풍토에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경관은 중국에서는 4세기에,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실체를 드러냈다. 하지만 우리는 경관이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우리 시대와 우리 풍토라는 세계성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며, 주관적인 투사에 의해 경관(투과적 실체)을 환경이라는 객관적인 실체와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은 사물의 보편성을 지닌다. 그래서 환경은 동물사회나 식물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사회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그러나 경관은 그렇지 않다.¹⁵⁾

경관은 우리가 보려고 할 때만 존재한다. 특히 제주 돌담 경관은 제주의

15) 오귀스탱 베르크, 2001, 대지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 미다스북스, p98~100.

지역적 특징을 잘 간직한 것이지만 이 경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경치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맹인이 아니므로 제주도에 살면서 돌담 경관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하지만 제주 돌담 경관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보고 그 경관을 본다는 것은 다른 의미이다.

경험이란 관점에서, 경관은 단순히 사물, 지형, 주택, 식물의 집합으로 이해될 수 없다. 경관은 물리적인 환경으로 구성되는데, 이 물리적 환경은 의미를 부여해주는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태도와 의도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경관은 항상 특징을 지니는데, 그 특성은 자연적, 인공적 특징과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의미의 특정한 결합으로 생겨난다. 다르게 표현하면, 경관의 특징과 의미는 경험의 의도성에 의하여 경관에 표출된다.¹⁶⁾

경관은 특정한 풍토성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관은 세계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풍토성과 시대성에 따라서 드러나는 그 무엇이다.¹⁷⁾

전 세계적으로 각 지역의 농촌경관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제주도의 돌담 경관만큼 지역의 풍토성과 시대성을 잘 드러내는 경관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지역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저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하지만 세계적 시야에서 이런 비슷한 경관이 다른 지역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 경관은 소중한 문화적 유산으로 연구되고 보호되고 있다면 제주의 돌담 경관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경관은 하나의 독특한 역사를 공간에 담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한 지역의 경관은 단시일에 급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세월을 걸쳐 그때그때의 역사적 사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농촌경관은 한 시대의 작품이 아니다.

경관의 이러한 시공간성은 투과적이다. 환경에 내재된 역사와 우리 안에 자리한 기억이 그 경관 안에서 서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시간

16) 에드워드 렐프,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p250.

17) 베르크, 전제서.

성의 우연적인 합치, 그것이 바로 경관의 공간성이다.¹⁸⁾

C. Norberg-Schulz(1965)는 현재와 과거의 경관 경험 간에 나타나는 핵심적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농부가 불 때 바위와 산들은 보기 흉하다. 경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험적 관계에 대한 느낌이 생생했던 시대에 인간은 경관과 함께 만들어진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의 인간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어디에서나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모든 경험적 관계들이 의미 없어졌다는 것을 함축한다.”

인간은 경관과 자연으로부터 점점 분리되어 왔다. 우리는 조상들처럼 육지나 바다·바람·산과 친밀하지도 않고, 또 인공적인 경관을 창조하는 데에도 조상들만큼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이 만든 에어컨·중앙난방식 건물·인공조명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런 분리가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결합되면서, 새롭게 창출되는 환경 유형과 경관을 경험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 왔다.

문화적 경관은 자연과 인간이 만나서 만들어낸 가시적·정신적 상호관계를 표상하며, 자연 속에서 인간이 생존해 온 자취를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각 국, 각 지역은 각기 다른 삶의 양식에 따른 문화적 경관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이처럼 일반 서민들이 생활 속에 배어있는 보통성을 독특한 문화유산적 가치로 인식하게 된 것은 최근에 들어서이다.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협약’에서는 문화적 경관을 구상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1994년에는 문화적 경관의 개념을 도입, 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 문화유산이 예술적·인문적 수월성과 장대함을 지닌 기념물이나 무형유산을, 자연유산이 생태적·자연적 훌륭함과 과학적 가치를 지닌 대상에 치우친 것에 대한 보완으로서 인간과 자연이 결합된 결과를 문화적 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한 결과

18) 상계서.

였다.¹⁹⁾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필리핀의 코르디레라스 다랭이논(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곳은 2000년 동안 높은 산간에서 벼농사의 등고선 경작을 해 오는 곳으로 논둑을 이어 놓으면 그 길이가 자그마치 2만2400km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농업지식과 신성한 전통, 공동체적 균형이 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전승되었고,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과의 보존을 아우르는 조화로우미 표현된 아름답고 경이로운 경관을 형성해왔다. 유네스코는 이를 인정해 ‘문화적 경관’ 제1호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것이다.

필리핀의 다랭이논과 제주의 돌담은 그 자체로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면서 창조된 경관이다. 특히, 섬 전체가 구불거리는 돌담으로 지도를 그린 것처럼 보이는 경관은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 것이다.

제주의 돌담은 필리핀의 다랭이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규모와 경관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의 문화적 경관의 기초적 원칙에 가장 잘 부합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이다.²⁰⁾

지역의 풍토성과 시대성을 잘 드러나는 문화경관만큼 좋은 문화유산도 없을 것이다. 지역별로 비교가치가 있는 문화경관을 비교해 본다면 첫째, 각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어 지역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고 둘째, 지역의 문화유산의 가치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계적 시야에서 보면 돌담 경관인 토지를 종횡시킨 모습은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동쪽 끝인 제주도와 서쪽 끝인 유럽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 각 지역의 지역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두 경관을 비교해 본다면 제주와 유럽의 지역성에 대해서도 잘 파악할 수 있어 학습자들에게 지역 이해 학습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며, 유럽 Bocage 경관은 많은 학자

19) 양보경, 2008 문화적 경관을 문화유산으로 만들자, 문화재사랑 50, 문화재청, 2009년 1월호, pp23~25.

20) 박경훈, "세계유산 손색없는 제주 돌담", 『경향신문』, 제33면, 2008. 6. 13.

들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역사적 문화유산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제주 돌담 경관과 비교를 한다면 학습자들도 제주 돌담 경관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지역 문화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나열된 사실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유산을 통해 지역의 모습에 대한 학습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 이해는 절대적으로 구분된 지역의 시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지적 시야에서 세계적인 시야에 이르는 규모연계(scale linkage)와 비교지역의 시야에서 지역을 볼 수 있을 때 지역 이해가 체계적이며,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Ⅲ. 비교 지역 관점에서 본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

1.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의 비교

지역이 갖는 고유한 경관은 그 지역의 위치와 영역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위치와 영역에 의해서 그 지역의 지형은 형성된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삼자간의 상호작용은 공간에 따라서 달라져, 지역마다 서로 다른 공간적 특징을 만들어내고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지역적 특색을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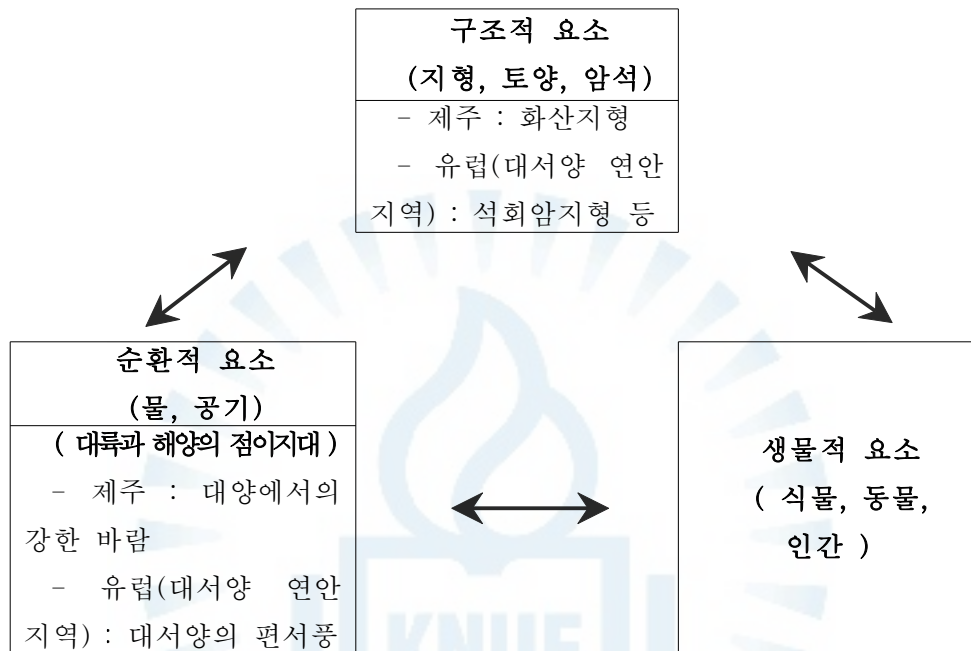
먼저 제주와 유럽 중 대서양 연안지역을 〈그림 1〉에 적용해 보면 제주는 구조적 요소로는 화산지형이며, 순환적 요소로는 대양에서의 강한 바람, 생물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제주 돌담 경관을 형성·유지시켜왔다. 유럽 중 대서양 연안지역은 구조적 요소로는 석회암지형 등과 순환적 요소로는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 생물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유럽 보카쥬 경관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1〉의 관계를 통해 보면 제주와 유럽 말고 다른 지역도 이런 조건을 갖춘 곳에서 또 하나의 돌담 경관(종획경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토지를 소유하기 등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왔다.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은 제주와 유럽이라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경관이다. 이 두 경관이 가진 비교가치는 첫째, 둘 다 토지를 나눈 종획경관으로서 다른 경관과 다르게 도로와 경작지, 경작지와 경작지 사이에 칸막이식의 뚜렷한 경계를 만든 유사점이 있고 둘째, 이 문화경관들은 언뜻 보면 현재 첨단기술시대의 농업방식으로 토지이용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주와 유럽이라는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경관으로 지속가능한 가치가 있어 비교가치가 충분하다.

여기서는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의 형성배경, 경관이 변화되어 온 과정, 오늘날의 모습을 기준으로 비교함과 동시에 지역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위치와 영역과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 지표 자연환경의 요소 간 상호작용²¹⁾

가. 형성배경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의 공통점은 소규모로 구획된 종횡경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경관의 형성배경에 그 차이점이 뚜렷하다. 제주 돌담 경관은 제주라는 위치와 영역에서 비롯된 환경에 인간이 적응하면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경관이지만, 유럽 보카쥬 경관은 경관형성 당시 사회적 영향으로 만들어진 인위적 요소가 많은 경관이라고 볼 수 있다.

21) 한국의 지형·토양환경 정밀 지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경섭, 1996)

1) 제주 돌담 경관

제주 돌담 경관의 형성배경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경사가 완만한 화산섬이라는 사실과 대양과 바로 접해 있는 한반도의 최남단 섬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화산활동²²⁾에 의해 이루어진 섬으로서 화산활동 시 흘러내린 용암이 섬 전체를 덮고 있다. 산과 들은 물론 바다까지도 돌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에서 돌은 농사짓는 데 걸림돌이었다. 밭에 씨를 뿌리려면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돌이 많아서 그만큼 힘들어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도구가 있으니 바로 농기구이다. 제주도 농기구들은 한반도의 농구에 비하여 크기가 상당히 작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토의 깊이가 얕고, 자갈 함량이 많은 제주도 경작토의 물리적 조건에 적응한 산물이다. 이러한 차이는 <표 1>에서 확인된다.

농기구	제주도	한반도
보습	너비 12, 길이 27	너비 25~34, 길이 43~44
따비 날	9~11.5	15~19

[표 1] 제주도와 한반도의 농기구 대비²³⁾

이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사람들은 화산섬의 척박한

22) 제주도의 화산활동은 네단계에 걸쳐 형성되었다.

제1단계(B.P.120만년전~B.P.70만년)에는 유동성이 매우 큰 현무암이 분출했다. 이를 기저현무암이라고 불린다. 이때 산방산 및 서귀포 남쪽의 일부 섬을 이루는 조면암까지 분출했고, 제2단계(B.P.60만년전~B.P.30만년)에는 유동성이 큰 표선리현무암이 분출하여 규모가 작으나 제주도 서쪽과 동쪽의 용암평원이 형성되고 제2단계 말에는 해저분화에 의해 성산의 일출봉과 송악산 등이 형성되었으며 제3단계(B.P.30만년전~B.P.10만년)에 제주도 남쪽과 북쪽의 해안지대와 해발 200~500m의 중산간지대를 덮고 있는 제주현무암과 하효리현무암이 분출하여 한라산의 순상화산체가 윤곽을 들어냈다. 제4단계(B.P.10만년전~B.P.2.5만년)에 들어서 시흥리·성판악·한라산현무암이 분출했다. 이들 현무암은 해발 500m 이상의 산간지대에 분포하며, 제4단계 말에는 산정부의 중상화산체를 이루고 있는 ‘한라산조면암질 안산암’이 분출했다. 또한 백록담화구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백록담현무암’이 소규모로 분출했고, 기생화산의 거의 전부가 이때 형성되었다.

23) 한국의 농기구 (김광언, 1967)

토양에서 나온 돌들을 밭의 이곳저곳에 쌓아놓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은 동문선(東文選)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 제주도는 난석(難石)이 많고 땅이 건조하여 본시부터 논이란 없고 다만 밀, 보리, 콩, 조 따위만 나는데 그나마 옛적엔 내 밭 네 밭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힘이 센 집에서 나날이 남의 것을 누에가 뽕을 먹듯 침범하므로 모든 힘없는 백성들이 괴로워하였다. 김구(金丘 1211~1278)란 이가 판관이 되어 온 뒤에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돌을 모아 밭에 담을 두르게 하니 경계가 분명해지고 그 뒤부터 백성들이 편하게 되었다.”²⁴⁾라고 하고 있다.

김구는 고려 때의 사람으로 고종21년(1234년)에 제주 판관으로 부임한 것으로 보아 돌담의 이용은 800여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겠다.²⁵⁾

그러나 화산섬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맞게 돌담을 쌓았다는 것은 설령 실증적인 기록이 없거나 이런 기록을 엄두에 두지 않더라도 현존 기록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²⁶⁾

이렇듯 제주인들은 경작지에서 나온 돌들을 처리함과 동시에 경작지 주변에 경계를 만들면서 쌓기 시작했던 것 같다. 지금까지도 밭 주변에서는 경작지에서 나온 돌들을 돌담 위에 돌을 얹어 놓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림 2〉 한반도에서의 제주도 위치

24) 진성기, 1990, 제주민속의 멋2, 설화당.

25) 김종석, 1998,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문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석사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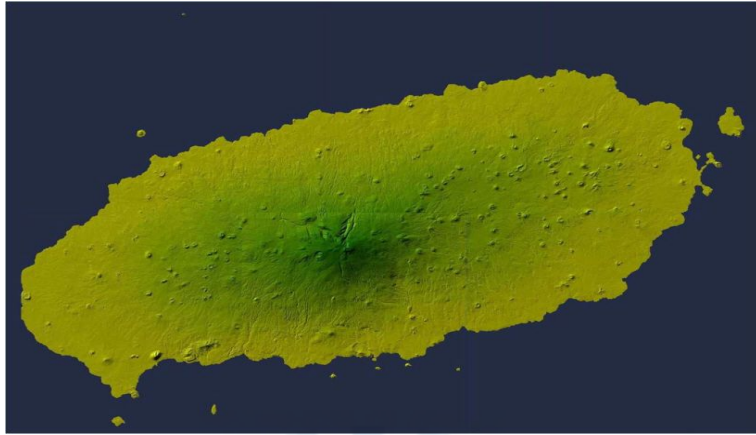
26) 김유정, "돌담, 삶은 기록보다 앞선다.", 『제민일보』, 제7면, 2007. 4. 6.

또 다른 점으로는 제주도는 <그림 2>와 같이 대양과 접해 있는 한반도의 최남단 섬이라는 사실이다. 대양에 접해있다는 위치의 의미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올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육지는 지표의 기복으로 인해 마찰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바람의 속도는 감소된다. 반면 기복이 없는 대양의 표면은 이동하는 물체나 흐름에 대해 마찰이 없으므로 마치 얼음판의 스케이트가 지나가는 것처럼 속도가 잘 유지된다. 그래서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 하더라도 대양에서의 이동은 바람의 속도가 그대로 유지시키는 반면 육지에서의 이동은 속도가 많이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대양과 접해 있는 제주도는 대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에너지의 손실없이 그대로 접하는 위치에 있다.

이에 더하여, 같은 바다를 접해있다고 하더라도 그 곳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은 대양과 부속해, 내해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한다. 자연 현상은 자연적인 규모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대양에서의 바람은 부속해나 내해의 바람과는 규모와 정도가 다르다. 대양과 접해있는 제주도로 불어오는 바람은 동해나 서해와 같은 내해에서 발생하는 바람과는 그 강도와 빈도에서 규모가 다르다.

이런 사실 이외에도 <그림 3>에서와 같이 제주도의 지표기복은 유동성이 큰 용암이 형성해 놓은 완만한 형태의 화산섬으로서, 중앙에 커다란 산지 하나를 제외하고는 바람의 이동을 막아줄 어떠한 지표기복도 존재하지 않다.²⁷⁾ 그래서 제주도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강한 바람에 대비한 생활을 하기 위해 돌담을 쌓기 시작했다.

27) 강정희, 2005, 초등 지역 이해 교육에서 위치와 영역 파악의 중요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과교육전공 석사논문.



〈그림 3〉 지표기복이 없는 제주도의 모습

2) 유럽 보카쥬 경관

유럽 보카쥬 경관은 그 당시 사회적제도인 인클로저 운동에 의해 굉장히 광범위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형성된 문화경관이다.

유럽 인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²⁸⁾은 미개간지, 공유지 등 공동 이용이 가능한 토지에 담이나 울타리 등의 경계선을 쳐서 남의 이용을 막고 사유지화 하는 일이다. 이 운동은 모직물 공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모직물 공업은 영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다. 본래는 양모(羊毛)를 그대로 수출했으나 14세기 중엽부터는 양모를 가공, 모직물을 짜서 이것을 유럽 각지에 수출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모직물 공업이 특히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튜더 왕조(Tudor dynasty) 시기이다. 왕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산업’,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치있는 제조업’인 모직물 공업을 위해 각별한 보호정책을 썼다.

그러자 봉건영주, 귀족 등 토지소유자들은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금까지 해오던 온 농사를 그만두고 목장을 만들어 양을 기르기 시작했다.

28) 우리말로 ‘담으로 둘러쌌’, ‘종합(綜劃)’으로 번역. 1381년 J.H.Claham이 사유 산재지의 통합, 경지의 목장화, 보유지의 집중, 공유지의 공유 등의 여러 가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농업지리학 (형기주, 2000)]

확실히 목장은 농사보다 노동력이 덜 들고 이익도 많아 훨씬 유리한 산업이었다. 토지소유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목양업(牧羊業)에 뛰어들었다. 농경지는 물론 황무지, 공동경작지까지 판자로 울타리가 둘러쳐 졌던 것이다.²⁹⁾

흔히 인클로저 운동이 영국에 있어서 근대적 목양업에의 진출만을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구에서는 오히려 영국보다 철저하게, 대규모로 행하여지고 있다.

인클로저 현상은 반드시 영국의 목양업진출에 의한 근대적 인클로저 운동에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원래, 공동방목을 행하기 위해 경지의 주변을 에워싸 경작지나 주거 및 채원(菜園)에 가축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겨울이나 야간의 가축보호 때문에 북서독일에서는 생 울타리, 저습지에는 환호(環壕), 빙하퇴적지대에서는 돌담 등 장소에 따라 특색있는 경포(耕圃)의 원초형태가 형성되어 이들이 공동규제로서 유지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중획경관 또는 보카쥬 경관이라고 하는데 이의 성인에 관해서는 경지의 개간과정에서 타의 경지와 구별하기 위한 것, 또는 가축을 보호하고, 그 배설물을 일정 장소에 모으기 위한 것 등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브레타뉴(Bretagne) 지방에 많이 남아 있는 경관이다.

나. 변화과정

여기서는 두 경관의 형성되기 시작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전개과정을 울타리의 형태와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1) 형태면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을 울타리의 형태를 기준으로 비교해

29) 형기주, 2000, 농업지리학, 법문사, p 114.

제주 돌담 경관	기준	유럽 보카쥬 경관
- 화산섬의 척박한 토양으로 인해 경작과정에서 나온 돌을 쌓아 놓음 - 쌓아 놓은 돌들을 가지고 사유지 경계 표시 - 「동문선」 기록 - 대양과 접해 있는 위치와 섬이라는 특성상 순상화산인 한라산을 제외하고는 바람을 막을 자연적 장벽이 없어 돌담을 쌓아서 바람을 막는 역할을 함 →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고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형성된 경관	형성 배경	- 인클로저 운동인 사회적 제도가 주된 영향 ⇒ 토지 종획 운동으로 공유지를 사유지화하기 위해 울타리나 돌담을 두르게 됨. 즉 개인 소유의 땅인 사유지 표시가 주 됨 → 사회적 제도의 영향을 받고 인위적이고 비교적 단시간에 형성된 경관

[표 2]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 형성 배경

보면 첫째, 두 경관에서 볼 수 있는 경계선이 직선과 구불구불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며, 구불구불한 모습이 직선보다 오래된 모습으로 확인된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경작 가능한 부분을 먼저 경작하면서 경계를 만들다보니 직선보다는 구불구불한 모습이 좀 더 과거의 경관이 된 것이다. 돌담을 쌓을 때는 땅을 어느 정도 파서 돌담을 쌓아야 튼튼했기 때문에 돌 위에 보다는 땅이 있는 공간에 돌담을 쌓았던 것이다.

둘째, 과거 두 경관이 가지고 있는 경계선의 복잡성이다.

제주 돌담 경관은 유럽 보카쥬 경관에 비해 그 역사성이 더 길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농지경작과정 등에서 자연적으로 돌들을 처리하면서 경계선은 점점 복잡해지고 돌담의 높이와 너비가 높아지고 넓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연적인 원인에 비해 사회적 제도의 영향도 살펴 볼 수 있

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제주도의 상속제도와 돌담과의 관계일 것이다.

제주도에는 한반도의 관개농업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효율을 지향하는 장자우대상속제와는 달리 중자균분상속제라는 토지를 모든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고, 제사도 형제들끼리 나누는 풍습³⁰⁾이 있다. 이런 풍습 때문에 소유지가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토지의 경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이는 토지 위에 돌담의 모습으로 나타나 점점 돌담의 경계도 복잡해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반대로 나누어진 소유지가 합쳐지기도 했지만 과거 기술로는 합쳐진 소유지 때문에 중간에 놓인 돌담을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³¹⁾ 물론 이것만이 돌담경계를 복잡하게 만든 점은 아닐 것이다.

반면 유럽 보카쥬 경관은 사회적 제도의 영향이 강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잉글랜드에서 발생한 18세기 인클로저 운동인데 이는 그 당시 목축을 목적으로 소유지를 더 작은 단위로 세분시켰다. Robert Bakewell (1725~95)은 레스터셔(Leicestershire)북부 자신의 농가 보유지에 양과 소를 기르는 실험을 한 사람인데, "50에어커(acre)의 초지를 다섯 개의 종획지로 나누어 소를 기르면 60에어커 넓이의 집중된 초지에서 기르는 것 못지않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의 견해는 다른 대규모 목양업자들도 공유했다. 각기 10에어커짜리 초지에서 소들이 풀을 다 뜯어먹은 후에는 가축들을 그 초지에서 다른 초지로 돌려 옮겨 항상 신선하고 새로 돌아난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경계선의 복잡성은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더 복잡하게 나뉘지기도 했다.

셋째, 경계로 사용한 재료가 돌이나 식물, 흙이라는 유사점이 있지만, 돌과 식물의 종류를 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제주 돌담 경관은 화산섬이라는 특징 때문에 경작지에서 주로 나오는 돌

30) 송성대, 2001, 제주의 해민정신 -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31) 제보자 : 홍달표(78세). 한림읍 귀덕 1리.

을 사용했다. 해안지방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인 먹돌을 가지고 돌담을 쌓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먹돌은 일반 밭에서 나온 돌들과는 달리 주변 해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둥글고 미끄러워 높게 쌓기가 불편했지만 경계를 표시하거나 해풍을 막는 역할을 하는 데는 충분했다.

1960년대에는 감귤 재배 확산으로 인해서 돌담의 높이가 높아졌고, 낮은 돌담 옆으로는 삼나무³²⁾, 편백 및 측백나무를 같이 심기도 했다.

반면 유럽 보카쥬 경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잉글랜드 보카쥬 경관의 생울타리는 주로 아카시아, 산사나무로 되어 있고, 울타리의 양쪽, 또는 한 쪽에 도랑을 파서 들짐승의 접근을 막고 동시에 가축의 이탈을 막았다. 또한 석회암지대에서는 돌로 담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프랑스 보카쥬 경관에서는 필지와 필지 사이에 주로 흙으로 쌓아올려 만든 둑 위에 떡갈나무, 밤나무 및 너도밤나무 등을 심었다.

넷째, 토지중획과 경작지면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제주의 돌담경관은 경작과정에 땅 속 돌들을 걷어내면서 돌담도 두껍고 높아진 반면 경작지는 확대된 부분이 있고, 돌담 울타리 사이에 길도 비교적 좁아(우마차가 겨우 다닐 정도) 경작지 면적이 좁아지는 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나 프랑스 보카쥬 경관인 잘 남아있는 브레타뉴 지방은 울타리 사이를 넓게(차가 한 대 다닐 수 있고 그 양쪽 둑도 너비가 비교적 넓음 - 그림 13참고) 만들다 보니 울타리가 경지 면적의 10%까지를 차지하여 그 면적이 좁아지게 되었다.

2) 기능면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을 울타리의 기능을 기준으로 유사점,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경관에서 알 수 있는 기능 순으로 비교해 보려고 한다.

32) 삼나무는 음지에서도 광합성을 하여 독립 영양을 마련할 수 있는 내음성식물로 음지에서도 성장이 좋고, 줄기가 곧게 뻗어 돌담 옆 방풍림으로 많이 심음.

형태면	유 사 점	차 이 점	
		제주 돌담 경관	유럽 보카쥬 경관
경계선의 모양과 역사성	옛날 조성된 것일수록 규모가 작고, 구불구불함		
경계선의 복잡성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복잡해져감		
경계로 사용한 재료	돌, 식물 등	- 경작과정에서 돌들이 많이 생겨남 - 상속과정에서 분할되어 새로운 경계선이 생김	- 18세기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에서 목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토지를 더 작은 단위로 경계 지음
토지총획과 경지면적의 변화		- 주로 현무암, 삼나무 등	- 잉글랜드의 보카쥬 경관 : 아카시아, 산사나무, 석회암 등 - 프랑스의 보카쥬 경관 : 흙, 떡갈나무, 밤나무, 너도밤나무 등

[표 3]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 형태면 비교

두 경관의 기능상 유사점으로는 첫째, 소유지 경계라는 면에서 유사점이 있다. 경관의 형성과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역사서 『동문선』에서 타인 소유지와 경계표시로 경작지에서 나온 돌을 이용했다는 내용은 유럽 보카쥬 경관에서 목양을 위해서 소유지 경계표시로 울타리를 쌓았던 이유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바람에 의한 방풍의 역할에서 유사점이 있다. 이 점은 두 경관이 보이는 지역의 위치와 관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제주도는 대양과 바로 접해 있는 한반도의 최남단 섬에 위치하여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표적인 예가 겨울부터 초봄까지 제주도에 부는 북서계절풍이다. 이 바람은 특히 옛 북제주군 지역에서 모래나 토양 입자들을 해안으로부터 내륙쪽으로 이동시키는데 광지리나 김녕리 일대에서는 곳에 따라 적어도 수십cm 이상의 토사가 쌓이는 정도이다.³³⁾ 이는 바람에 영향에서 농작물을 보호하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유럽 보카쥬 경관은 대서양연안 쪽에 이를수록 보편적으로 넓게 나타난다. 이 점을 바람과 관련지어 본다면 대서양 연안에서 부는 편서풍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아일랜드와 프랑스의 서부지역인데 아일랜드는 유라시아 서쪽 말단에 위치한 섬으로 대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편서풍을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곳이다. 또한, 바람을 막아줄 자연 방벽도 없는 곳이다. 이러한 바람의 작용에 의해 토양 내부의 수분 증발이 활발하여 씨앗의 발아가 힘들고, 초본류 식물들이 살기 힘든 환경으로 인해 유기물로서의 토양화 과정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자연환경을 지닌 곳이다. 이런 곳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울타리였다.

이 유사점은 둘 다 지역적 위치가 대륙과 해양의 점이지대(漸移地帶)에 위치했다는 공통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두 경관 모두 가축을 보호하고 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든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제주도는 동아시아대륙 동쪽의 수륙점이지대(水陸漸移帶)에 위치하여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남·북간 문화 교류의 흔적이 나타나는데 돌담과 관련된 문화가 바로 '말의 문화'이다. 또한 말이 먹이가 되는 초지 조성은 온량지수가 높은 저위도보다는 고위도가 유리한데 위치상 제주도는 위도가 낮기 때문에 말의 먹이가 되는 초지 조성이 어려운

33) 이준선, 1999, 프랑스와 한국의 농경지 풍경의 비교, 지리·환경교육 7(2).

자연적 조건을 이루고 있으며, 말을 이용한 이동력을 절실히 필요로 할 만큼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는 곳도 아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말과 관련된 경관은 자연발생적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된 북방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제주도의 높은 온량지수를 극복하는 방법은 높은 고도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잘 관리하고 마소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돌담은 더 넓은 범위에 조성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기록인 『남명소승』에도 “산에는 짐승, 들에는 가축이 있다. 천백마리씩 무리를 이루어 다니는 까닭에 말을 일구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담을 둘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세종실록』 3년(1421) 3월 22일 갑신조에는 지나친 밭담 축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 백성들이 밭머리에 담장을 쌓아서 소와 말을 밟아 훼손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적이 침입하는 변란이 있을 경우 말을 달릴 수 없으니 방어상 중요한 곳은 청컨대 이를 철거하여 말이 달리는 데 편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밭담의 폐단에 대한 건의는 100여년이 지난 중종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종은 마소를 방목하여 기르는 제주 사정을 감안하여 밭담을 허물게 되면 마소가 농작물을 해치게 돼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될 것이므로 만약 필요하다면 작은 길을 내도록 하라고 명하고 담장을 허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³⁴⁾

유럽 보카주 경관도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목초재배와 소의 방목 등을 했기 때문에 가축의 침입 방지를 통한 작물보호의 측면도 있다.

넷째, 울타리와 생태계와의 연관성이다. 제주 돌담은 생태계들 간의 차단의 의미가 아닌 분리이면서 통합의 의미를 지녔다.

돌담은 경계의 표시일 뿐 미생물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제주도에서 바람은 원래 식물이 크는 데 영향을 주는데 돌담이 바람을 순하게 하여 키가 작은 초본류가 자라는 데 좋은 영향을 주며, 토양의 유실을 막아서 미립

34) 제주 사이버 삼다관 www.jejusamda.com

질 토양과 밭에 주는 퇴비의 유실을 방지하기도 한다. 말 그대로 제주 돌담은 생태계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준선(1999)은 유럽 보카쥬 경관에서는 수목으로 에워싸인 일단의 필지가 완전히 목초로 덮인 곳이 대부분이지만 이따금 동일필지에 여러 가지 작물을 대상(帶狀)으로 재배하여 놓은 곳도 발견된다고 했다. 보카쥬 경관이 지배적인 서부 프랑스 전체를 놓고 보면, 숲·경지·목초지·황무지가 교잡하게 분산하여 일률적 개방경지에 비해 다양하다. 프랑스 브레타뉴 지방에서 생 울타리는 농작물의 태양에너지 흡수를 촉진시켜 주는데 이는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보온 효과를 지녔으며, 위도상으로 볼 때 브레타뉴 지방이 남쪽으로 약 300km 에 위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나게 되며 결과적으로 작물의 성장기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제주 돌담처럼 방풍 및 수분 흡수 등으로 동식물의 서식지 조건을 만들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두 경관의 기능상 차이점으로는 첫째, 울타리형성에 관계된 인원이 투입된 정도에 따라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제주의 돌담은 그 형성과정에서 개인 또는 가족단위라는 소규모 공동체에 의해 쌓아져왔다. 개인토지에서 나오는 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으며, 이 노동력보다 주변에 쌓은 편이 쉬웠고, 개인토지가 돌담으로 인해 잠식되는 것을 감수해야했다. 이렇게 밭에서 나온 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이가 높아지고, 두꺼워졌다. 반면, 유럽 보카쥬 경관은 장소에 따라 특색 있는 경포의 원초형태가 형성되어 공동규제로서 유지되고 있다가 인클로저 운동에 의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형성되었다. 특히 1801년 의회 인클로저 이후 이 법률에 따라 공유지의 중획이 진전되었고, 1836년과 1845년의 개정법에서는 촌락경지 면적의 2/3이상을 소유한 자가 인클로저를 의회에 신청하면 토지소유자수 1/3이 반대하여도 강제할 수 있도록 되니 영국에 있어 개방경지는 산업혁명기를 통해 완전히 해체되어 중획화되고 만다.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비교적 단기간에 중획을 위해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울타리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울타리 안 토지이용 측면에서 제주도는 거의 밭농사를 짓는다. 이 점은 앞서서도 말했듯이 화산섬으로 인해 물이 땅으로 잘 스며들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 보카쥬 경관은 목축을 위한 초지 재배나 소의 방목 등 혼합 농업이 이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외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울타리경관의 기능을 살펴보면 제주 돌담 경관에서는 밭의 경계로 돌담이 생기게 됨에 따라 돌담으로 둘러싸인 밭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즉, 도로에 붙은 밭과 다른 밭을 통해서 지나가야하는 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토지가격의 차이와 수확시기에 새로운 풍습, 그리고 두껍게 쌓은 돌담 위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토지가격은 도로에 붙은 토지가 밭들로 둘러싸인 토지보다도 가격을 더 준다. 수확시기 때는 도로에 붙은 밭의 주인이 먼저 수확이 끝난 뒤에 그 밭을 이용해서 수확을 해야 할 밭주인이 그 다음으로 수확을 한다. 경작과정에서 특히 돌이 많이 나오는 곳일수록 돌담의 두껍고 높운데 이 두껍게 쌓은 돌담 위를 길처럼 이용해서 사람들이 안쪽 밭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생겨나게 되었다.

유럽 보카쥬 경관 중 프랑스 브레타뉴 지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울타리 사이 길이 비온 뒤 진흙이 많이 쌓이는데 화학비료 없던 시절엔 파내어 좋은 거름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생 울타리는 겨울에 목초가 부족할 때 가축의 사료로 도움이 되었다. 둘째, 울타리 사이 도로가 그늘지고 습기가 차며 물이 고이곤 하는 특징들이 각 농가들의 고립성을 조장하는 이유 중 하나였고, 이는 촌락의 산촌화로 이어져 그 지역 사람들의 공동체 약화 및 개인주의 발달의 한 원인이 되었다.

기능면		제주 돌담 경관	유럽 보카쥬 경관
유사점		- 소유지 경계표시 - 바람의 영향에서 농작물 보호 - 가축보호와 동물로부터 농작물 보호 - 생태계를 풍요롭게 함	
차이점	울타리 형성에 투입 인원	개인 또는 가족단위	형성기간이 비교적 단기적이라 많은 인원이 투입될 가능성 있음
	울타리 안 토지를 이용	밭농사가 주를 이룸	목축을 위한 초지 재배나 소의 방목 등 혼합농업
	기 타	- 도로를 접한 밭과 접하지 못한 밭의 토지 가격의 차이 - 수확시기 - 농로(農路)의 기능	- 울타리의 사료적 이용가치 - 각 농가들의 고립성을 조장 - 촌락의 산문화 - 공동체 약화 및 개인주의 발달

[표 4]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 기능면 비교

다. 오늘날의 모습

1) 제주 돌담 경관

제주도에서 돌담 경관이 가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돌담을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960년대 감귤 재배 확산과 더불어 돌담으로 둘러싸인 농경지 풍경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돌담의 높이를 높이거나 돌담 주변에 방풍을 위해 나무를 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농기계의 발달과 함께 농업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농지개량사업을 하면서 돌담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농지개량사업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농지개량사업을 한

바닷가 지역의 밭에서는 겨울철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해수의 피해가 심해졌고, 잎이 얇은 농작물 중심으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³⁵⁾

특히, 2008년 5월 11일 농업진흥지역전면해제 예정고지를 하기 전에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 행위는 엄격히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된다면 농지면적의 급격한 축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대부분 농지에 묶여 있던 돌담 역시 해체와 파괴가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동산투기나 건축개발이 이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이로 인한 농지면적의 급속한 해체와 함께 농지면적의 급속한 축소를 동반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도 돌 문화 중 돌담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담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아지고 있고 돌담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2) 유럽 보카쥬 경관

유럽 보카쥬 경관은 대서양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다.

프랑스 브레타뉴 지방에서는 1960년대부터 Remembrement³⁶⁾가 시작되었고, 1970년대부터 둑(Talus)과 생 울타리(Haie)가 제거되면서 농기계를 사용한 농업노동이 용이해졌고 1인당 하루의 가경면적(可耕面積)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19세기에 널리 분포하던 황무지와 방목지는 자취를 감추고, 영구초지도 상당부분 인공초지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기존 동식물의 소멸, 홍수의 발생이나 토양침식 증대 등과 같은 생태적·환경적 문제를 야기하여 울타리를 다시 조성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잉글랜드 보카쥬 경관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불도저가 광대한 공지(空地)를 만들기 위해 오래된 생 울타리들을 밀어 뭉개고 철저히 파내어버렸다. 잉

35) 출처 : 하영환(56세). 한림읍 수원리.

36) 농경지 정리에 의한 소유지 통합.

글랜드에서는 특히 사회적, 역사적 변동에 의해 인클로저 경관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공생관계를 벗어나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영국에서 돌담은 역사, 경관, 야생 생물 보호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돌담 제거를 바라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르투갈도 돌담과 관련한 경관구조 파괴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토지 및 문화경관계획이 도입되어 오솔길을 차단 또는 경작하지 않거나, 들판의 돌담, 유적들을 제거하지 않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이 지불되고 있다. 웨일즈에서는 티르 사이멘(Tir Cymen)이라는 농업-환경 계획을 도입, 주로 돌담 복구를 위하여 농장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돌담파괴의 금지들은 유럽연합 규정 2078/92에 근거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에서 볼 수 있다.³⁷⁾

오늘날 모습	제주 돌담 경관	유럽 보카쥬 경관
유사점	농기계의 발달과 → 농경지 정리 - 제주도 : 농지개량사업과 방풍림조성	농업생산성 극대화 → 경관의 변화 - 프랑스 : Remembrement
차이점	- 돌담 경관에 대한 문화 유산적 가치 인식이 필요함	- 보카쥬 경관이 가진 역사, 경 관, 야생 생물 보호 측면에서의 가치 인식 - 돌담 파괴 금지를 유럽연합 규정에 근거 보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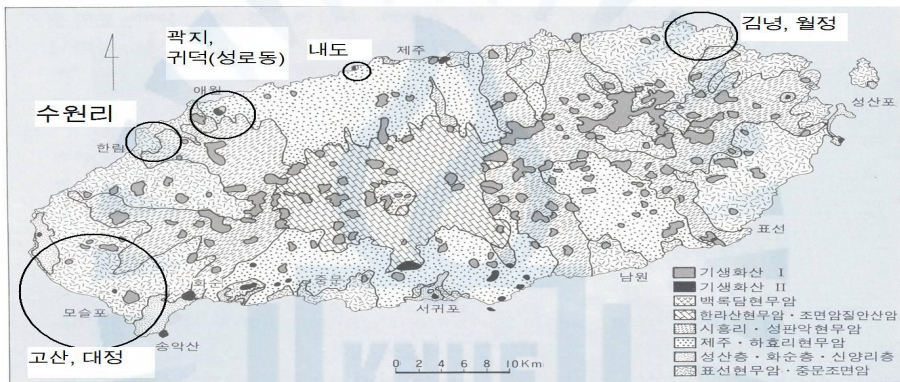
[표 5] 오늘날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

37) 강대선, "제주가 잃어가는 에메니타:돌담", 『제민일보』, 제7면, 2004. 10. 19.

2. 문화경관으로 보는 지역 이해

가. 돌담 경관으로 본 제주 지역

여기서는 제주의 돌담 경관이 지역마다 가진 독특한 특징을 살펴 이를 통해 제주도를 지역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연구대상이 방대함 때문에 돌담 형태가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고산리·대정읍, 수원리, 괄지리·귀덕리, 김녕리·월정리, 제주시 내도지역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그림 4> 제주도의 지질³⁸⁾

1) 대정읍 일대, 한경면 고산지역 (제주도 남서쪽)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돌담의 특징은 대체로 그 높이가 매우 낮고 두께도 외담형태라는 것이다. 돌담이 낮다는 것은 첫째는 땅을 경작하면서 돌이 별로 안 나왔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 지역에 바람의 영향이 별로 없다는 점 셋째는 최근 들어와서 개간을 통해 토지재정리 했다는 점 등을 유추할 수 있는데, 대정, 고산지역은 제주도에서도 바람의 영향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고, 토지재정리는 군데군데 이루어진 곳이 있지만 옛 모습이 남아있는 곳도

38) 제주도의 형성과정과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 (원종관, 1975)

많다. 첫 번째인 땅 속에서 돌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이곳의 지질과 관계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4〉와 같이 대정, 고산지역은 화산활동 제2 단계에서 제주도 동·서쪽의 용암평원 형성과 더불어 화순층에 속한다.

이 화순층은 해저에서 쌓인 화산쇄설물의 퇴적층인데 송악산의 퇴적암층을 말한다. 이곳은 토양층이 제주도 전반적으로 얇은 것과는 달리 두꺼운 토양층으로 되어 있어 〈그림 5〉에서와 같이 밭에서 돌이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³⁹⁾에 돌담 높이가 낮고, 외담형태가 대부분이다. 특히 제주 4·3 사건 때 많은 마을에서 돌로 성을 쌓았는데 고산지역에는 돌 대신 흙으로 성을 쌓았다는 점도 이 지역의 지질적 특징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림 5〉 대정읍 신도리 밭담

2) 한림읍 귀덕 및 애월읍 광지 지역 (제주도 북서쪽)

이곳은 평소 제주공항에 들어오는 비행기에서 제주 돌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한림읍 귀덕리와 애월읍 광지리는 행정구역상 금성리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을 뿐 비교적 가까운 마을이다. 이 지역은 돌담의 높이도 비교적 높고, 외담 뿐 아니라 겹쳐서 쌓은 겹담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돌담의 형태에서 이곳이 제주도 내에서도 돌이 많이 나는 동네로 유명한 곳이었음을 뒷받침

39) 권혁재, 2003, 한국지리 총론, 법문사, p165.

한다. 이 지역은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화산활동 제3단계에서 제주도 남쪽과 북쪽의 해안지대와 해발 200~500m의 중산간 지대를 덮고 있는 현무암 분포지역이다.

한림읍 귀덕리 성로동(城路洞)⁴⁰⁾이라고 불리는 곳은 마을 이름 자체가 돌이 많음을 암시하고 있다. 성로동에 가보면 <그림 7>와 같이 보통 잔돌을 가지고 겹쳐서 쌓았는데 그 위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하다.



<그림 6> 제주시 애월읍 광지봉 주변 발담



<그림 7>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성로동 발담

40) 제주어로 '잣질동네'라고 하며, 여기서 '잣'은 보통 돌로 쌓은 성이라는 뜻이고, '질'은 제주어로 길을 뜻하므로, '잣질동네'를 한자어로 하면 '城路洞'이 된다.

3) 구좌읍 김녕 및 행원지역 (북동쪽)

이 지역은 지형상 굴곡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밭에 분포된 암반의 양이 많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오래 전 밭으로 사용하지 못한 미개간지를 최근 들어 기계의 도움으로 암반을 없애고 그 위에 흙을 놓아서 밭을 조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밭담의 특징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좁다 보니 밭담 역시 <그림 8> 과 같이 굉장히 복잡하고 곡선의 모습도 많이 보인다.

특히 이 지역의 돌담은 <그림 9> 와 같이 겨울과 초봄에 강한 북서풍을 타고 해안에서 내륙쪽으로 모래나 토양입자들이 상당한 정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바람에 의한 돌담의 기능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그림 8> 구좌읍 김녕리 밭담



<그림 9> 구좌읍 행원리 밭담

해안에서 내륙쪽으로 밀려온 모래와 토양입자

4) 해안가 대표적 돌담 - 제주시 내도(일명 알작지)

이 지역은 해안가 마을로 해안 지역의 돌담의 특징은 땅에서 나온 돌들도 이용했지만 주로 바닷가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둥근 먹돌을 가지고 쌓았다는 것이다.

〈그림 10〉에서와 같이 먹돌 자체가 둥글고 매끄럽기 때문에 돌담을 쌓을 때 굉장히 힘이 들고 그 높이는 앞에서와 말한 것과는 다르게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곳의 돌담은 바닷가이지만 방풍의 역할보다는 주로 경작지의 경계의 역할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0〉 제주시 내도 밭담

5) 한림읍 수원리 구름뜨르 지역(제주도 북서쪽)

이 지역은 제주도에서 농지개량사업으로 돌담 경관이 바뀐 대표적인 곳이다. 이곳 또한 돌이 많이 나오는 동네로 유명하다. 하지만 농기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농업생산량 측면에서 돌담은 농사를 짓는데 많은 불편함을 주었다. 특히, 밭 사이로 농로가 별로 많지 않아서 농민들은 다른 밭을 통해서 자기 밭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러다가 1971년~1974년에 걸쳐 대다수 주민들의 필요로 농지개량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우선 구불구불한 돌담을 네모반듯하게 만들었고, 농로도 잘 만들어 놓았다. 이런 경관의 변화는 농작물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예전

에는 조, 보리 등 비교적 크기가 큰 농작물을 하다가 지금은 크기가 작은 양배추, 파, 무, 브로콜리를 주로 재배하고 있다. 예전에는 돌담이 높이가 1m가 훌쩍 넘었지만 지금은 50cm이하이다. 이 점은 소득이 높은 농산물의 변화로 볼 수도 있지만 밭담의 높이와 농작물이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⁴¹⁾

하지만 농지를 정리한 후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겨울철 북풍이 불어 농작물의 해수 피해가 심해졌는데 이런 피해는 농작물의 잎이 단단한 양배추, 브로콜리에 비해 파 등의 잎이 연한 농작물의 피해가 더욱 심했다.

이곳은 현재까지도 농사를 지으면서 돌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돌들 때문에 농로의 폭이 점점 좁아져서 마을에서는 농로로 나온 돌들을 또 다시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⁴²⁾

하지만 첨단기술이 발달한 현재에도 여전히 돌담이 밭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제주 지역에서 돌담 경관이 지속 가능한 경관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그림 11〉 한림읍 수원리 구름뜨르 밭담
농지개발사업으로 돌담 경관이 변화된 곳

41) 제보자 : 김대순(71세). 한림읍 수원리.

42) 제보자 : 하영환(56세). 한림읍 수원리.

6) 중산간 지역 돌담

중산간 돌담 경관은 역사적으로 제주도의 목축문화와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부터 전략적 말산업의 요충지 역할을 했던 제주도는 목축산업으로 인해 중산간 지역에 농작물 재배 대신 말을 기르기 시작했다. 이는 돌담이 주로 목축산업의 경계선을 뜻하는 잣성 - 중산간 지역 돌로 된 경계구역 - 밑으로 밭을 일구도록 했고, 밭담 문화 또한 지대가 낮은 곳에 밭담이 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19세기에 들어와서 목장 내 경작이 허가되어 부분적으로 밭농사를 하기 시작했고, 경계가 필요한 곳에 밭담을 쌓기 시작했다.

나. 보카쥬 경관으로 본 유럽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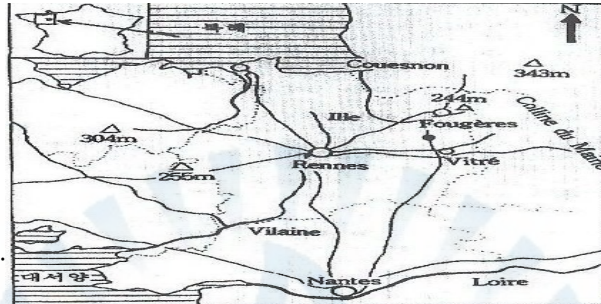
유럽 보카쥬 경관은 대서양 연안쪽에 이룰수록 보편적으로 넓게 나타나는 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는 노르망디(Normandie)와 아르모리칸 산지(Massif armorican) 및 프랑스 중앙산지 (Massif central) 지역, 에스파니아 북서부, 잉글랜드와 에이레, 네덜란드, 서부 덴마크, 핀란드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프랑스와 영국(아일랜드,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2〉 유럽 대륙 서안지역

1) 프랑스 보카쥬 경관

프랑스 보카쥬 경관은 센강 하구와 스위스의 제네바 호를 잇는 선을 경계로 남서부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특히 브레타뉴 지방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농경지 풍경으로서, 흙을 쌓아 만든 둑과 그 위에 심어진 소관목이나 교목으로 이루어진 생 울타리에 의해서 토지가 구획되고 숲이 많다



<그림 13> Saint-Christophes-des-Bois 지역⁴³⁾

이준선(1999)은 프랑스 브레타뉴 지방의 수도인 Rennes의 북동쪽 쪽 지역 촌락의 특징에서 보카쥬 경관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림 12> 에서 보듯이 이 지역은 전형적인 서안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800~1000mm의 연평균 강수량이 연중 고르게 내리는데, 평균 15일 중 7일 동안은 24시간 내내 비가 내릴 정도이기 때문에 습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촌락들이 중심지나 소촌을 막론하고 대부분 곡지를 피해서 능선 부위를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다.



<그림 14> 프랑스 보카쥬 경관 - 울타리 안⁴⁴⁾

43) 프랑스와 한국의 농경지 풍경의 비교 (이준선, 1999)



<그림 15> 프랑스 보카쥬 경관 - 하늘에서 본 모습⁴⁵⁾

필지들은 북쪽과 남쪽으로 발달한 소규모 하곡을 향해서 긴 형태를 이루면서 분포하는데 이 또한 사면의 자연경사를 이용하여 습기를 피하고 배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필지의 규모는 매우 다양하지만, 소규모 필지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필지와 필지 사이에는 <그림 14>와 같이 주로 흙으로 쌓아올려 만든 높이 0.5~1.5m, 폭 1~4m의 둑과 그 위에 다시 생 울타리를 조성, 이 두 부분이 결합되어 하나의 울타리를 형성하는데 이 울타리만 농경지 면적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이다

이 울타리는 가축과 타인의 침입 방지, 농지 소유권 확인, 사료적 이용가치, 방풍 및 수분 흡수 등 생태적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며, 특히 울타리와 울타리 사이에 움푹 파인 곳은 평시에는 도로로 사용되지만, 소나기라도 내리면 날이면 물이 흐르는 도랑으로 돌변하여 깊이 파일 뿐만 아니라. 비가 그치면 진흙이 많이 쌓이기도 한다. 이 진흙은 화학비료가 없던 시절에 파내어져 좋은 거름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도로가 이와 같이 그늘지고 습기 차며 물이 고이곤 하는 특징들이 각 농가들의 고립성을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된다. J. R. Pitte는 1986년 지적도와 현지 조사 결과에서 필지의 규모가 앞 시기에 비해 훨씬 확대된 이유에 대해 토지를 소수의 장소로 통합하고 재분배함으로써 농업경영의 비용을 줄이고 소출을 증대시켜서 영농의

44) <http://images.google.co.kr/images?gbv=2&hl=ko&newwindow=1&sa=1&q=Bocage&aq=f&oq=&start=0>

45) 위와 동일.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1960년대부터 브레타뉴 지방에서 Remembrement가 시작되어 독과 생 울타리가 제거된 부분만큼 실질적인 경지면적이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바람과 동결, 토양침식은 증대되었고, 기존 동식물의 소멸, 홍수의 발생이나 토양침식 증대 등과 같은 생태적·환경적 문제로 인해 울타리를 다시 조성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2) 아일랜드 보카쥬 경관

고위도 지역에 위치한 아일랜드의 기반암은 주로 석회암이다. 석회암은 수분이 쉽게 순환할 수 있는 균열 및 틈새의 밀도가 높아 쉽게 기계적 힘에 의해 풍화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밀도 높게 발달한 틈새는 수분 침투 및 순환이 용이하여 서릿발 작용에 의한 기계적 풍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⁴⁶⁾ 그러므로, 아일랜드의 기반암인 석회암은 동결-융해 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져 암괴에서 많은 암설이 떨어져 나오게 된 것이다.

이처럼 <그림 12> 와 같이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에 의한 표토층의 부족과 서릿발 작용에 의해 많은 암설이 노출된 아일랜드에서 밭을 일구고 살아가려면, 돌을 치우고 바람을 막아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것의 해결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림 16> 에서 보이는 돌담이다.



<그림 16> 아일랜드 돌담 경관⁴⁷⁾

46) 오경섭, 2000, 지형학 관점에서의 영월댐 건설 타당성 평가, 한국지형학회지, 9(2).

3) 잉글랜드 보카쥬 경관

잉글랜드의 위치적 특징은 아일랜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 등 같은 구조 속에서 비슷한 경관을 이루어왔으나, 잉글랜드의 경우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보다는 역사적 사건에 의한 경관변화가 뚜렷하다.

잉글랜드의 경관에 대해서 W. G. Hoskins는 잉글랜드의 역사 속에서 경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 사건과 계기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 중요한 계기로서 정주와 식민, 인클로저, 귀족과 농민층의 주택개량 열풍, 산업화 등을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잉글랜드 자연풍경에서 가장 뚜렷한 인상을 주는 울타리와 인클로저는 전적으로 봉건 지배세력과 지주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다. 울타리치기는 잉글랜드 남부와 미들랜즈(Midlands) 거의 전역에 걸쳐 중세말 이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마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개조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인클로저는 단순히 울타리를 친 것이 아니라, 마을을 다시 건설하거나 기존 마을을 황폐화하는 등 삶의 공간을 근본적으로 뒤바꿨고, 몇 세기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개별 마을과 촌락의 처지에서 보면 불과 몇 년 사이에 마을과 그 주위의 모든 풍경이 일순간에 달라졌다고 한다.⁴⁸⁾

잉글랜드 서남부 화강암지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표면에 바위가 놓인 곳이라면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형태를 띤 소규모 경지가 주를 이룬다. 이 지역은 경사가 너무 심해서 쟁기질하기 곤란한 곳이나 자갈이 지표면에 두껍게 흩어져 있는 곳에서의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자갈투성이 지역에서 바위가 너무 커서 옮길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 때에는 그 곤란을 피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방책선에 끼워 넣기도 했는데 초기에 방책선이

47) 이승호 교수의 아일랜드 여행 지도 (이승호, 2006)

48) W. G. Hoskins, (이영석 옮김), 2007, 잉글랜드 풍경의 형성, 한길사. (1955, The Making of the English Landscape, Hodder & Stough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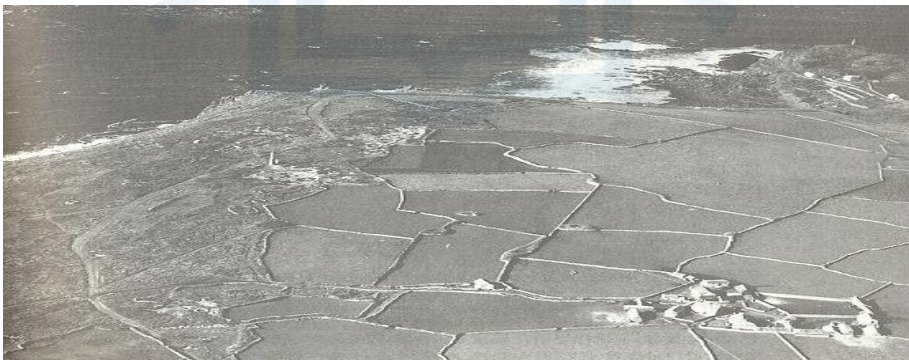
극도로 들쭉날쭉했던 것은 이런 식으로 큰 나무나 바위를 비껴가거나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인클로저 운동에 의한 새로운 풍경 중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작은 단위로 울타리를 친 경지이다. 인클로저 운동은 광대한 개방경포를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경지 단위로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크기와 형태에 있어 획일화를 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림17> 과 같이 1750년대부터 의회의 개별 입법을 통한 인클로저가 추진된 이래 잉글랜드 풍경 또는 그 상당 부분의 변화는 혁명적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림 17> 레스터셔 킬비(Leicestershire Kilby) - 1771년 의회 인클로저로 생겨난 경포⁴⁹⁾



<그림 18> 콘월(Cornwall) 곳 근처의 켈트인 마을과 경포⁵⁰⁾

49) 잉글랜드 풍경의 형성 (W. G. Hoskins, 1955)

50) W. G. Hoskins, 전계서.

잉글랜드 서쪽 끝에 있는 콘월(Cornwall) 주는 경포와 울타리가 아직까지 손상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18〉과 같이 몇 마일씩 화강암 돌벽을 경계로 쌓아올린 불규칙한 경포망은 일단 그 패턴의 변화가 거의 없다.⁵¹⁾

하지만 잉글랜드 보카쥬 경관은 산업혁명 등의 사회적·역사적 변동에 의해서 대부분의 경관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였고,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공생관계를 벗어나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51) 상계서.

IV. 현행 지역화 교재 내용을 보완하는 학습 내용 구축

1. 수업 설계의 방향

현행 지역화 교과서를 통해서 지역을 이해한다는 것은 행정구역 단위에 의존한 계통적으로 나열된 정보를 습득하는 정도이다. 지역에 대한 학습으로 내용이 연관성이 약하며, 어떤 원리에 의한 것보다는 단순한 사실 나열에 치우친 경향이 많다. 이런 점들은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사실 위주의 많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문제이다.

특히, 1단원 제주특별자치도의 모습 중 소단원 ‘(3) 제주도의 달라진 모습’에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속에서 제주도라는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문화재를 찾아서』라는 제재에서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서 돌을 이용한 문화재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통해 자연을 이용한 조상들의 지혜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자연환경인지, 왜 돌로 된 문화재가 많은지에 대한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한마디로 이런 문화재가 존재하는 지역적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아주 짧거나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역을 이해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기후, 산업, 인구 등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잘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이다. 제주도의 농촌 문화경관 중 대표적인 돌담 경관이야말로 제주의 지역성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제주 돌담 경관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경관이 아니다. 제주사람들이 제주도라는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만들어 온 경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의 형성배경, 그 동안 변해 온 과정,

오늘날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이런 지역성을 지닌 또 다른 문화모습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다.

또한 유럽의 대표적인 농촌경관인 보카쥬 경관은 제주 돌담 경관과 굉장히 많은 유사점을 지녔다. 많은 학자들은 유럽 보카쥬 경관을 지역 이해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 돌담 경관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를 통해 그 동안 무심코 바라보았던 제주의 돌담과 그 외 모습들에 대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고장과 지역을 사랑하고자 하는 가치 태도를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문화유산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문화경관 중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경관인 돌담 경관을 유럽 보카쥬 경관과 지역 사례 비교를 통해 초등 수준에서 돌담 경관을 통한 제주 지역 이해를 기본방향으로 하려고 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맞는 학습 재를 구성하여 7차시 분량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체화시켰다.

지역 이해에 있어 지역 사례 비교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업 전에 수업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수업 후와 비교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다만 대상 학생들이 지역화교과서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면 더욱 좋겠지만 연구계획 상 지역화교과서를 배운 학생들이라는 점은 변인통제 상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2. 수업 내용의 구성

가. 주제별 내용 구성

제주 돌담 경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역적 특징과 문화유산적 가치를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 지역 관점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제재를 추출하여

학습요소로 구성하였다.

주제	제재	학습요소
돌담으로 알아보는 제주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를 통해)	제주와 유럽에서의 울타리경관	제주와 유럽의 위치와 울타리 경관의 의미
	형성배경	돌담 경관과 보카쥬 경관의 형성 원인
	변화과정	돌담 경관과 보카쥬 경관의 변화과정
	오늘날의 모습	다른 경관과 비교를 통한 제주 돌담 경관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돌담과 제주의 지역성	제주 돌담으로 알 수 있는 제주 지역 특징과 이와 관련된 제주문화 알아보기

나. 학습 지도안 구성

주제	제재	차시	학 습 목 표
돌담으로 알아보는 제주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를 통해)	제주와 유럽 에서의 울타리 경관	1	제주와 유럽의 위치를 비교하고,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울타리경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형성 배경	2	제주 돌담 경관을 만든 까닭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하여 말할 수 있다.
		3	
	변화 과정	4	제주 돌담 경관의 형태(모습)와 기능(역할)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하여 제주 지역의 특징을 알 수 있다.
		5	
	오늘날의 모습	6	유럽 보카쥬 경관과 제주 돌담 경관을 비교하여 제주 돌담 경관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알 수 있다.
	돌담과 제주의 지역성	7	제주 돌담으로 알 수 있는 제주 지역 특징과 이와 관련된 제주문화를 알 수 있다.

주제	돌담을 통한 제주 지역의 이해		
제재	1) 제주와 유럽에서의 울타리경관	차시	1차시
학습목표	제주와 유럽의 위치를 비교하고,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울타리경관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
도입	● 동기 유발 ○ 제주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돌담경관을 사진으로 살펴보기 - 사진1(제주 돌담)과 사진2(아일랜드 돌담)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 공부할 문제 ○ 제주와 유럽의 위치를 비교하고,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울타리경관의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 사진자료, 세계지도
전개	● 활동 1) 세계지도에서 제주와 유럽의 울타리경관이 나타나는 지역의 위치 살펴보기 ○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끝과 서쪽끝 ○ 대륙이 대양과 접하는 지역 ● 활동 2) 울타리경관의 의미 알아보기 ○ 제주와 유럽의 울타리경관을 제시 - 제주 돌담, 아일랜드 돌담, 프랑스 생 울타리 등의 특징 통해서 울타리경관의 의미를 알아본다.		★ 세계지도, 제주도 전도 ※ 지도에서 각 대륙과 대양의 위치를 자세히 설명한다. ★ PPT 자료
정리	● 울타리경관의 의미 알아보기 - 도로와 밭 사이에 경계선을 칸막이 식으로 뚜렷이 하며, 재료는 돌, 흙, 나무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함		

주제	돌담을 통한 제주 지역의 이해		
제재	2) 두 경관의 형성 배경	차시	2, 3차시
학습목표	제주 돌담 경관을 만든 까닭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하여 말할 수 있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 유발 ○ 노래 '감수광'듣기 - 제주도가 '삼다도'인 이유 살펴보기 ● 공부할 문제 - 제주 돌담 경관을 만든 까닭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하여 말해봅시다.		★ '감수광' 음악
전개	● 활동 1) 제주의 돌담경관 형성 배경 알아보기(읽기 자료 1) ○ 화산섬의 특징 살펴보기 - 토지를 개간하면서 땅에서 돌이 많이 나옴 - 농사를 지으려고 한쪽 구석에 그냥 쌓아 놓음 ○ 대양과 접해있는 위치적 특징 살펴보기 - 대양과 접해있어 바다에서 부는 세찬 바람을 맞음 - 한라산을 제외한 바람을 막을 장벽이 거의 없음 (지표기복이 없는 제주도) ○ 기록으로 본 돌담경관 (이야기 자료 2) - 동문감의 나온 '김구판관'의 내용으로 돌담이 소유지 경계의 역할을 함 - 하지만 제주도의 지리적 특징으로 보았을 때 이미 동문감 기록 이전부터 돌담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음 ● 활동 2) 유럽 보카쥬 경관 형성 배경 알아보기 ○ 인클로저 운동에 대해 알아보기 - 토지중획운동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공유지를 사유지화하기 위해 울타리나 돌담을 두르게 됨. 즉, 개인 소유의 땅인 사유지의 경계 표시가 주 됨 - 인클로저 법에 의해 비교적 단기간 조성된 경관 ● 활동 3)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이 만들어진 까닭을 표로 비교해 보기 ○ 표를 통해서 제주 돌담 경관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하여 형성 배경 알아보기		★ PPT 자료 ★ 만화자료
정리	● 제주도의 돌담경관 형성 배경 - 제주도가 화산섬으로 땅에서 돌이 많이 나오는 특징과 대양과 접해있는 위치에서 바람을 막을 방법으로 돌담경관이 만들어진 점 - 역사책 『동문감』으로 토지 주인들이 소유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돌담으로 경계를 함 -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관임 ● 유럽 보카쥬 경관 형성 배경 -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경관		

주제	돌담을 통한 제주 지역의 이해		
제재	3) 두 경관의 변화과정	차시	4, 5차시
학습목표	제주 돌담 경관의 형태(모습)와 기능(역할)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하여 제주 지역의 특징을 알 수 있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 유발 ○ 돌담 형성 배경과 관련하여 대정과 고산의 돌담 경관 보여주기 - 제주도에서 가장 바람이 세기로 유명한 대정과 고산지역 밭담들이 전체적으로 낮은 이유 알아보기 ● 공부할 문제 제주 돌담 경관의 형태(모습)와 기능(역할)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하여 제주 지역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 PPT 자료
전개	● 활동 1)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Bocage 경관을 형태면으로 비교하기 (지역적 특징) ○ 경계선의 직선과 곡선의 의미 ○ 돌담이 높이에 따라 - 높은 곳과 낮은 곳 ○ 돌담의 두께에 따라 - 겹담과 외담 ○ 재료에 따라 - 돌, 흙, 나무 등 ○ 토지 위 울타리 공간에 따라 - 제주도 상속제와 관련하여 돌담이 늘어나고 복잡해짐, 유럽은 인클로저 운동이후 목양의 효율성 때문에 울타리가 점점 많아지고 면적은 좁아짐 ● 활동 2)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을 기능면으로 비교하기 (지역적 특징) ○ 두 지역의 위치와 관련된 울타리 경관의 기능 - 바람의 영향 ○ 가축과 관련된 울타리 경관의 기능 ○ 울타리 경관과 관련된 지역문화 - 제주도 : 돌담 형성과정에서 개인과 가족중심으로 쌓음 농로의 역할 (담 위로 다니기도 함) 밭담과 밭 가격 - 유럽 보카쥬 : 울타리로 인한 마을의 산문화 개인주의 밭담 가축의 사료 역할		★ PPT 자료 ※ 지역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서 지역적 특징을 살펴본다. ★ PPT 자료
정리	● 제주 돌담을 통해서 제주도가 여러 차례 화산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화산섬, 대양과 대륙의 만나는 지점, 목축문화 등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특징을 알 수 있다.		

주제	돌담을 통한 제주 지역의 이해		
제재	4) 오늘날의 모습	차시	6 차시
학습목표	유럽 보카쥬 경관과 제주 돌담 경관을 비교하여 제주 돌담 경관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알 수 있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 유발 ○ 제주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자연유산 지정과 관련하여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조건 살펴보기 ● 공부할 문제 - 유럽 보카쥬 경관과 제주 돌담 경관을 비교하여 제주 돌담 경관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알아봅시다.		★ PPT 자료
전개	● 활동 1) 오늘날 제주 돌담 경관의 모습 ○ 제주 돌담 모습 (자료1) - 농업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농지개량사업으로 경관 변화 - 1960년대 감귤재배 확산과 더불어 농경지 풍경의 변화 - 돌담 경관이 변한 이유 살펴보기 ○ 제주 돌담 경관의 미래(자료2) - 농지면적의 급속한 해체와 축소 : 돌담 경관의 급속한 해체 우려 ○ 유럽 보카쥬 경관 - 프랑스 보카쥬 경관 변화로 인해 생긴 문제 ○ 유럽 보카쥬 경관의 미래(자료2) - 유럽 연합의 법으로 보호받는 보카쥬 경관 ● 활동 2) 두 경관이 가지는 지속가능한 가치 ○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의 문화적 경관의 기초적 원칙 -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면서 창조된 경관		★ PPT 자료 ※ 학습자들에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와는 달리 새로운 가치에 대해 설명한다.
정리	● 제주 돌담 경관은 인간과 자연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창조된 경관이기에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주제	돌담을 통한 제주 지역의 이해		
제재	5) 돌담으로 살펴본 제주의 지역성과 관련된 문화유산	차시	7 차시
학습목표	제주 돌담으로 알 수 있는 제주 지역 특징과 이와 관련된 제주문화를 알 수 있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지표★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제주도'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알아보기 - 한라산, 감귤, 돌하르방, 삼다수, 성산일출봉, 동굴 등 ● 공부할 문제 제주 돌담으로 알 수 있는 제주 지역 특징과 이와 관련된 제주문화를 알아봅시다.		
전개	● 활동 1) 제주 돌담으로 알 수 있는 제주의 지역성을 알아보기 ○ 위치적 특성 - 말과 돌담 : 북방에서 말이 유입되어 돌담이 전역으로 퍼짐 → 대륙문화(추운 지방의 문화) - 굴과 돌담 : 감귤농사로 인해 돌담의 높이가 높아짐 → 열대와 온대의 접이지대(더운 지방의 문화) ○ 영역적 특성 - 돌이 많음 : 경사가 완만한 화산섬 - 바람이 센 : 대양이 접해있는 최남단 섬 ● 활동 2) 제주의 지역성과 연관된 다른 문화유산 알아보기 ○ 위치와 관련 - 추운지방 특징 : 온돌, 보리 - 더운지방 특징 : 돼지, 야자나무, 선인장 등 ○ 영역과 관련 - 화산섬 : 돌하르방, 성산일출봉, 용암동굴 등 - 바람 : 초가집, 바닷가 나무(편향수)		
정리	● 제주 돌담을 통해서 제주 지역 특징을 알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제주문화에는 초가집, 용암동굴, 돌하르방, 보리, 온돌, 돼지, 야자나무, 선인장, 파인애플 등이 있다.		

3. 수업 적용 과정

가. 연구대상

실제 연구 수업은 제주 예래초등학교 4학년 1반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10월 29일~11월 10일 동안 7차시 분량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대화를 하듯이 자유롭게 질문과 응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연구 수업 전 학습자의 질문지를 수업 후 질문지와 비교 통해서 그 효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동료 교사가 참관하였는데, 동료 교사는 교직 경력 13년 이상으로 수업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닐 수 있는 경력이며, 참관자의 역할은 연구수업 2차시정도를 참관한 후 학습자의 반응과 수업자의 태도 등 수업 전반에 대해 질문지를 작성하여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 실제 수업의 적용

실제 수업 전에 배울 내용과 관련된 질문지를 통해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간단히 확인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돌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5가지 이상을 쉽게 적었는데 아마 1학기 때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을 배웠기 때문인 것 같다.

둘째, 돌담을 보았던 장소를 말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학습자들이 집주변과 마을을 대답하였고, 두 학생은 제주도 전체에 많다고 했다.

셋째, 돌담을 쌓은 돌은 어디서 왔냐는 질문에는 4명이 화산섬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6명 땅에 돌이 많다고 했고, 그 외 주변에서 가져왔거나, 일부러 돌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학생도 있었다.

넷째, 밭에 있는 돌담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28명 중 16명이 학생이 도둑을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했고, 경계선 역할은 2명, 바람막이용 2명, 그 외 동물의 피해를 줄이는 등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돌담이 가진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해 아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유네스코에 돌담을 세계문화유산으로 하는 편지를 써 보라고 했는데 앞서 돌담의 역할을 쓴 어린이는 그 돌담의 기능을 가지고 문화유산적 가치를 썼지만 11명은 모르겠다는 답을 했다. 2명이 돌담이 오래되었다는 1명이 자연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다는 대답은 흥미로웠다.

본 수업은 '돌담을 통한 제주 지역의 이해'라는 주제로 교재와 교수자료를 이용하였다.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지도와 사진자료를 사용했는데 지도 자료로 세계 지도와 우리나라 지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도를 사용했고, 사진 자료로 제주 돌담 경관과 지역 특색이 들어나는 자료를 사용했다. 학습자들이 자료를 확인한 후에는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끼리 생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수업 시작 전에 학습자들에게 수업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였다. 첫째는 워크북에 관한 내용인데 1학기 때 이미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를 배웠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화 교과서와 워크북을 비교해 주었다. 공통점으로는 제주 지역의 내용을 배운다는 점이고, 다른 점으로는 기존의 지역화 교과서가 제주도라는 지역을 다룰 때 한반도 안, 제주도 내에서만 생각했다면 워크북은 지역의 시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시야에 이르는 규모연계(scale linkage)를 통해서 제주 지역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왜 제주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비교'방법의 사용했느냐이다. 이는 그림붓과 페인트 붓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우선 그림붓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설명방법이 있지만 페인트 붓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그림붓을 설명한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는 예로 제주라는 지역을 이해함에 있어 유사점이 보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 본다면 이해가 쉬울 수 있고, 이

점은 수업 내용 내내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과의 비교의 방법으로 제주 지역 이해를 돕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세계지리와 세계사를 학교교육 과정에서 처음 접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세계 지도 속에서 제주의 위치와 유럽 위치를 파악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했고, 유럽에 관련된 세계사 부분이 나올 때는 용어도 어렵고 낯설어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는 돌담이라는 것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반대쪽인 유럽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돌담의 존재 가치를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수업 과정을 통해서 돌담이 문화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돌담 안에 숨겨진 가치가 제주도 이해의 기초자료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총 5개의 제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첫 번째 '제주와 유럽에서의 울타리 경관'에서는 두 지역의 비슷한 경관을 통해 비교방법을 사용하는데 의미 있는 지역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제주도의 울타리경관이 돌담 경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그 재료가 다를 수 있음을 통해 제주와 유럽에서 울타리경관의 의미를 확실히 하고자 했다.

학습자들은 처음에 돌담이 제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아일랜드에도 있고, 형태도 제주도의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에 신기해했다. 세계 지도와 우리나라 지도, 제주도 지도를 한꺼번에 보여줌으로써 각 지역의 위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였고, 특히 두 지역의 위치에서 공통점인 유라시아 대륙에 속하면서 서쪽 끝과 동쪽 끝에 있고 둘째, 대양과 대륙이 만나는 위치라는 점을 지도에서 발견하게 함으로써 두 경관의 위치와 경관의 관계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이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세계 속 제주도를 살펴보는 것에 신기하면서도 각 지역의 용어에 대해서는 생소하여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도 했다.

두 번째 '두 경관의 형성배경'에서는 제주 돌담 경관의 형성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후에 유럽 보카쥬 경관의 형성배경을 확인 후 두 경관을 비교하였다. 먼저 돌담의 종류를 살펴 본 후 앞으로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 발담임을 확인했다. 제주 돌담의 형성배경에서 학습자들은 1학기 때 지역 교과서를 배웠기 때문에 화산섬이라는 대답은 쉽게 나올 수 있었지만 바람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읽기 자료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김구 판관 이야기를 통해 돌담을 쌓았던 역사적 배경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이 수업을 통해 제주 조상들이 굉장히 힘들게 농사일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유럽 보카쥬 경관에서는 인클로저 운동을 먼저 설명하면서 유럽에서 울타리 경관이 생기게 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유럽 보카쥬 경관은 자연환경에 적응보다는 인간이 인위적인 요소가 많은 점을 통해 두 지역의 울타리 경관의 특징을 표로 정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교하는 글을 써 보게 했다. 이 수업에서는 용어들에 대해 많은 학습자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많은 설명이 필요했다. 단순히 읽기자료 보다 좀 더 효과적인 자료의 필요성을 느꼈다.

세 번째 '두 경관의 변화과정'에서는 두 경관의 형태와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변화과정을 비교해 보면서 제주지역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번 수업 방향으로 첫째, 돌담 경관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제주의 지역성을 살펴볼 수 있고 둘째, 이를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별로 돌담의 두께와 높이가 다름에서 땅 속에 나오는 돌이 차이가 나고 이는 제주도 화산활동이 여러 차례 일어났음을 이해했다. 두 번째로는 토지 위에 경계선이 점점 복잡해짐이 시간의 흐름도 있지만 제주도의 독특한 풍습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고, 세 번째로 바람을 막는 역할을 하는 돌담을 통해 바람이 많은 지역성을 알았으며 네 번째로 가축을 보호하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점에서는 말 문화를 통해 제주도에서 추운지방과 더운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모습에 대해 잠깐 언급했다. 그리고 유럽 보카쥬 경관의 모습과 비교를 통해서 제주가 가진 지역성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

었다.

이 제재에서는 학습자들이 두 경관의 형태를 살펴보는데 있어 시각적으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제주의 지역성을 살펴볼 수 있었으나, 기능에서도 바람, 가축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쉬웠으나, 풍습 등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시각자료가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읽기자료보다 효과적이었다.

네 번째 '오늘날의 모습'에서는 두 경관이 오늘날 각 지역에서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다.

동기유발로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유산을 살펴 이런 문화유산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보고 이를 제주 돌담 경관과 연결시켜 생각하게 했다. 오늘날 제주 돌담은 농기계의 발달과 굴농사 등으로 인해 그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농지를 정리하고 돌담 옆에 방풍림을 했으며, 작년 신문기사인 '농업진흥지역 전면해제 예정 고지'를 통해서 앞으로 제주 돌담 경관의 더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음을 학습자들에게 알게 하였다.

반면 유럽 보카주 경관은 한 때 제주 돌담 경관처럼 없애다가 부작용과 그 가치를 인식하여 지금은 유럽연합 규정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통해 제주 돌담 경관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1995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필리핀의 다랭이논과 제주 돌담 경관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두 경관의 공통점을 찾게 하고, 제주 돌담 경관이 갖는 문화유산적 가치를 찾게 하여 제주 돌담 경관이 문화유산으로써 손색없음을 이해시켰다. 이 부분에서 학습자들은 바로 옆에서 그리고 매일 보던 돌담 경관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문화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다섯 번째 '돌담으로 살펴본 제주의 지역성과 관련된 문화유산'으로는 제주 돌담 경관을 통해 알아본 지역성이 다른 모습으로는 어떻게 살펴 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데 학습자들은 비교적 쉽게 지역성과 다양한 모습을 잘 연

결시켰는데 화산섬, 바람과 관련된 모습은 확실히 알았지만 기후적 요소와 관련된 모습 중 추운 지방에서 온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했다.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은 제주 돌담 경관에 대해서는 학습자들이 경험을 해 보았고 설명을 하면 이해도 쉽게 하는 반면 유럽 보카쥬 경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호기심을 보이다가도 학습자들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좀 더 학습자 눈높이에 맞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냥 제주 돌담 경관만 가지고 한 것보다는 두 경관의 비교가 지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음은 학습자들의 반응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4. 수업 적용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인 비교 지역 관점으로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지역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돌담을 통한 제주 지역의 이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한 후 마무리에서 학생들과 참관자에게 수업에 대한 평가를 질문지에 서술형으로 답하게 하였다.

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반응

1) 제주 돌담(밭담)의 역할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

돌담의 역할에 대해서는 28명 학생들이 전부 쓸 수 있었다. 수업 전에 나왔던 도둑을 막기 위해서라는 대답은 한명도 나오지 않은 점은 학생들이 수업 후 돌담의 역할에 대한 지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돌담 경관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는 28명 중 18명의 학생들이 응답이 나왔는데 응답한 학생들 대부분이 "사람들이 지역의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든 가치"를 꼽았고, 2명은 "돌담이 오래되었고, 제주 전역에 있다는 점을

가치"있게 생각하였다. 또한 이런 돌담의 역할과 가치를 가지고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달라는 편지에 대해서는 28명의 학생들이 돌담의 좋은 점과 가치를 가지고 전부 편지를 쓸 수가 있다는 점에서 돌담에 대한 가치에 대해 전보다는 많이 알고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제주 지역성에 대한 인식

이 부분은 지역 이해의 기본 개념인 위치와 영역에 대해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위치로는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의 사이에 있어 그 지역의 문화를 전부 볼 수 있는 점이고, 영역으로는 화산섬과 대륙과 대양의 사이에 있어 바람이 세다는 점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3가지 특징을 적은 학생은 3명, 2가지 특징을 적은 학생이 2명, 1가지를 적은 학생이 18명, 응답이 없거나 그냥 돌담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답한 학생이 5명이었다.

이는 하나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지역을 이해하는 기본개념인 위치와 영역이라는 점을 전부 알 수 없지만 지역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학습 자료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의 비교 지역 학습에 대한 인식

학생들은 제주 돌담 경관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하니 이해하기가 쉽다는 대답이 17명이 나왔고, 두 지역의 모습을 알게 돼서 좋은 것 같다는 대답이 6명이 나왔다. 나머지 5명은 돌담의 특징을 많이 알게 되었고, 두 지역을 비교할 수 있다는 등의 대답이 나왔다.

이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흔히 보이는 제주 돌담에 대한 이해와 그 가치를 느끼는데 비교 지역 관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제주 돌담에 대한 학습에 있어 다른 지역과 제주도를 비교하면서 느낀 돌담은 그

전에 매일 보이던 돌담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고, 특히 필리핀의 다랭이논과의 비교에서도 제주 돌담의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해 매우 쉽게 이해시킬 수가 있었다.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 사고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워크북을 이용한 학습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

- 돌담이 소중한 가치가 있다. (9명)
- 돌담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8명)
- 돌담을 통해 제주의 특징을 알았다. (6명)
- 다른 나라에도 돌담이 있다. (2명)
- 제주도에 돌담이 많다.
- 제주도의 화산활동 과정을 알 수 있었다.
- 제주 돌담 경관이 유럽 보카쥬 경관보다 오래되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바로 돌담의 가치에 대한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주변에서 일상처럼 보이던 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소중히 해야 하겠다는 점은 바로 지역을 이해하는데 있어 지역을 '비교방법'을 통해 학습한 가장 큰 효과이며, 이는 주변 사물을 보는 안목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돌담을 통해서 제주의 지역적인 특징을 새롭게 알게 된 학생도 6명이나 있으며, 두 지역을 비교했다는 자체가 두 지역에 대해서 동시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돌담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학생도 2명이나 있었다.

5) 학습과정에서 힘들었던 점

학생들 중 지겹지도 어렵지도 않다고 한 학생이 12명이 있었지만, 16명이 학생들은 몇 부분에서 어렵다고는 했지만 지겹다고 한 학생은 한명도 없었

다. 학생들이 어렵다고 한 부분을 살펴보면

- 낱말들이 어려웠다. (2명)
- 돌담이 만들어진 이유 부분이 어려웠다.
- 제주 지역 특징을 배우는 부분이 어려웠다.
- 첫 부분에서 두 지역의 위치를 배우는 부분이 어려웠다.(4명)
- 영어낱말이 있어서 어려웠다.
- 유럽 보카쥬 경관 부분 (4명)
- 워크북에 있는 문제가 어려웠다. (2명)

학생들은 4학년 수준에서 세계지리와 세계사 부분을 학습하는데 있어 용어의 어려움을 보여 좀 더 학생들 수준에 맞게 고쳐야겠지만 이점이 오히려 학생들의 흥미를 느끼게 한 점이기도 하였다. 또 제주 돌담 경관은 매일 보았던 것이라 쉽게 이해한 반면 유럽 보카쥬 경관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어려움을 느꼈고, 워크북에 나온 문제를 어려워한 점은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겠다.

7) 지역화 교과서인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와 워크북의 차이

이 부분에서는 28명의 학생들의 대답 중 유의미한 반응들만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워크북을 통해 두 곳의 모습을 알 수 있다.
- 워크북은 지겹지가 않고 재미있다.
- 두 경관을 비교해서 공부하니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보다 이해하기가 쉬웠다.
- 워크북은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서 배우는 제주도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 있었다.
- 워크북이 좀 더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것 같다.

· 1학기 때 배운 교과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워크북을 통하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 워크북은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에 비해 신기한 것이 많아서 재미가 있었다.

·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 고장에 대해서만 배운 것 같고, 워크북은 우리나라, 다른 나라를 포함해서 제주도를 배우는 것 같다.

학생들의 유의미한 응답을 종합해 보면 지역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지역을 비교하는 것은 지역에 대해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고 형식적인 진술이 아니라, 지역을 좀 더 쉽고, 깊은 이해를 유도해낸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흥미로 연결되기에 기존의 지역화 교과서보다는 재미있다는 점도 볼 수 있었다.

8) 워크북을 통한 수업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개선사항
학생들의 대답 중 유의미한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 측면	개선사항
· 구체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쉽다. · 돌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 돌담의 소중함을 알게 돼서 좋다. · 제주도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 만화자료가 좋았다. · 유럽에 대해 알게 돼서 좋았다.	· 낱말이 어려운데 좀 더 쉬운 말로 썼으면 좋겠다. ·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만화를 더 넣었으면 한다. · 더 많은 자료를 넣어 쪽수를 늘렸으면 한다. · 처음 부분이 어려운데 고쳐야 할 것 같다. · 조금 복잡하다

수업을 진행되면서 학습내용과 학습방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감을 나타냈지만 고쳐야 할 점도 드러났다.

고쳐야 할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면

첫째, 용어에 대한 어려움이었다.

세계지리와 세계사를 배우면서 나온 '인클로저 운동'과 관련된 단어들, '유럽 보카주 경관'과 같이 어려운 단어는 4학년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꼈고 이에 대해 좀 더 쉬운 단어로 된 설명이 필요하였다.

둘째, 학습내용에 대한 다양한 자료의 필요성이다,

대부분 읽기자료와 사진자료로 되어 있었고, 돌담형성부분에 있어서 만화 자료를 넣었는데 아무래도 만화로 된 자료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있었다. 아무리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자료를 선택한다면 학습내용에 대한 흥미와 이해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처음 학습부분인 지역의 위치 확인에 대한 지적이다.

처음 부분은 두 지역을 비교하기 전에 왜 두 지역을 비교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지역의 위치를 확인하여 공통점을 찾아보고, 두 경관이 비슷한 점을 찾는 부분에서 제주도와 우리나라를 떠나 세계의 한 부분으로 제주도를 인식하는 것이 생소했던 것 같다.

나. 참관자의 수업에 대한 반응

참관자의 수업에 대한 반응은 학습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을 배우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비교 지역 관점으로 지역을 학습하는데 있어서는 비교 대상을 두면 학생들이 지역을 이해하는데 더 빠르고, 우리가 사는 곳이 더 가치롭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재 내용을 제시함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학생들이 이해가 더 쉬웠을 것이며, 내용 서술 방식을 기행문 형식의 글로 전개해 보았으면 학생들이 더욱 흥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V. 결론 및 제언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현재 학습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소재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학습자의 능동성을 확보하는 자기화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화 학습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이해 및 지역과 세계와의 관련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이 된다.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에서 지역화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지역의 내용을 다룬다는 명목하여 학습자들에게 어떤 원리에 의해 학습내용이 구성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는 지역에 대한 학습으로서 내용이 연관되지 못하며, 단순한 사실 나열에 치우친 경향이 많다. 지역을 학습하는 것은 지역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다. 지역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지역에 관한 많은 사실을 열거하여 알고 있다고 하여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본 연구자는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지역 이해를 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 바로 비교 지역 관점이다.

지역이라는 공간은 시·공간적으로 아주 많은 요소들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유기적인 복합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 이해에서 비교방법으로 알 수 있는 관계설정을 떠나서 지역을 학습한다면 지역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비교 지역 관점은 지역 이해에 있어 첫째, 의미있는 지역의 모습을 비교를 통해 지역 이해의 기본개념인 위치와 영역에 따라 어떤 지리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며 둘째, 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을 볼 수 있는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의미있는 지역의 모습으로 본 연구자는 문화경관을 생각했다. 문화경관만큼 지역의 풍토성과 시대성을 잘 드러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제주’라는 지역을 이해함에 있어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경관인 ‘돌담 경관

‘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를 통해 지역 이해에 있어 비교 지역 관점의 중요성을 검증하고자 했다.

수업에서는 두 경관의 형성배경, 경관의 변화되어 온 과정, 오늘날의 모습을 기준으로 지역 이해에 중요한 위치와 영역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비교 지역 관점에 기초한 수업을 한 결과 첫째, 학생들은 두 경관의 비교를 통해서 제주도가 화산섬이고, 대륙과 대양의 사이에 있다는 영역적 특징과 제주가 북쪽의 추운 지방과 남쪽의 더운 지방의 사이에 있어 두 문화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위치적 특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제주의 위치와 영역적 특징을 제주의 다른 문화요소와 연결시킬 수도 있었다.

둘째, 제주 돌담은 제주지역 사람들에게 흔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친숙한 것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 지역 관점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일상적인 모습에 대해 새롭게 볼 수 있는 교육적 효과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은 문화유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를 통해 ‘제주 돌담 경관’이 문화유산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돌담 경관’을 세계적인 시야에서 볼 때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비교 지역 관점을 적용함에 있어 어려운 점도 있었다. 먼저 학습자들의 용어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게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 돌담 경관의 모습은 본 연구자가 원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으나, 유럽 보카쥬 경관에 대한 자료는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래서 유럽 보카쥬 경관에 대한 시각자료의 부족으로 읽기자료 중심으로 만들다보니 학생들의 이해가 힘들었다. 이 점은 지역 비교를 할 때는 비교 대상 지역에 대한 다양한 자료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비교 지역 관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

주지역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로부터 시작한다면 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 그리고 세계 지역을 이해하는 안목이 생길 것이다. 또한 비교 지역 관점을 통해 제주의 또 다른 문화유산인 용암동굴, 가옥문화 등에 대해 자기 지역의 고유성과 문화유산적 가치를 계속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초등 사회과 교육에서 지역학습에서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과의 비교 지역 관점은 학습자에게 내 지역을 보는 안목을 넘어 다른 지역을 볼 수 있는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다. 또한 이는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시작단계이며, 중학교·고등학교·대학에 이르기까지 수준을 심화시킬 수 있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대선, "제주가 잃어가는 에메니티:돌담", 『제민일보』, 제7면, 2004. 10. 19.
- 강정효, 2004, 화산섬 돌이야기, 각.
- 강정희, 2005, 초등 지역 이해 교육에서 위치와 영역 파악의 중요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과교육전공 석사논문.
- 권이중, 2005, 비교교육론, 한국학술정보(주).
- 권정화, 1997, 지역인식논리와 지역지리 교육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
- 권혁재, 1999, 한국지리 지방편, 법문사.
- 권혁재, 2003, 한국지리 총론, 법문사.
- 김광언, 1969, 한국의 농기구, 문화홍보국 문화재관리국.
- 김보영, 2008, 초등 사회과에서 지역사례 비교학습의 유용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과교육전공 석사논문.
- 김유정, 2007, 제주의 무덤, 국립민속박물관.
- 김유정, "돌담, 삶은 기록보다 앞선다.", 『제민일보』, 제7면, 2007. 4. 6.
- 김종석, 1998,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문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석사 논문.
- 나카무라 카즈오 외2명, 2001, 지역과 경관, 선학사.
- 남상준, 2005,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쟁점 및 방향,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공청회,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류제명, 1996, 지리교육내용의 계열적 조직 방안에 대한 연구, 지리·환경교육, 제6권 제2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 박경훈, "세계유산 손색없는 제주 돌담", 『경향신문』, 제33면, 2008. 6. 13.
- 송성대, 2001, 제주의 해민정신 -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 양보경, 2008, 문화적 경관을 문화유산으로 만들자, 문화재사랑 50, 문화재청, 2009년

1월호.

에드워드 펄프,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오경섭, 1996, 한국의 지형·토양환경 정밀 지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3(1).

오경섭, 2000, 지형학 관점에서의 영월댐 건설 타당성 평가, 한국지형학회지, 9(2).

오귀스탱 베르크, 2001, 대지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 미다스북스.

원종관, 1975, 제주도의 형성과정과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 「이학논집」, 건국대학교.

이득기외 2명, 1996, 비교교육학 : 연구방법과 교육개혁, 문음사.

이승호, 2006, 이승호 교수의 아일랜드 여행 지도, 푸른길.

이준선, 1999, 프랑스와 한국의 농경지 풍경의 비교, 지리환경교육 7(2).

전경수, 1993, 비교의 개념과 문화비교의 적정수준-서설적 검토, 비교문화연구, 창간호,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제주도교육청, 2009,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진성기, 1990, 제주민속의 멋2, 설화당.

최정웅외 6명, 1995, 비교교육발전론, 교육과학사.

형기주, 2000, 농업지리학, 법문사.

제주 사이버 삼다관 (www.jejusamda.com)

Goodenough, Ward H, 1970, Description and Comparison in Cultural Anthropology, Chicago: Aldine.

Hartshorne, R., (한국지리연구회 역), 1998, 지리학의 본질, 믿음사. (1939, The Nature of Geography,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Linda S.Levstik 외 1명, 2008, Handbook of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Routledge.

McMurry, C, 1922, Special Method in Geography, The Macmillan company.

W. G. Hoskins, (이영석 옮김), 2007, 잉글랜드 풍경의 형성, 한길사. (1955, The Making of the English Landscape, Hodder & Stoughton.)



ABSTRACT

The Usefulness of Understanding Cultural Landscapes through Cross-area Comparison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Education

- Comparison between Jeju stone wall landscape and European bocage landscape -

Kang, Seong gi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upervised by Prof. Gyeong-seop Oh, Prof. Jeong-hwa Kwon

Understanding an area is knowing the concepts of elements characterizing the area correctly and examining how the concepts are interconnected with one another.

In today's localized textbooks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for the 4th grade, however, contents are disconnected and most of them are merely listing facts without organization based on a certain principl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cross-area comparison as a method for teaching the contents of localized education, which simply enumerated facts, and to discuss its utilization in localized textbooks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and, by doing so, to show the importance of cross-area comparison.

Like people use 'comparis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ings in

daily life, comparison of two areas aims at understanding the geographical meanings of the areas according to location and region, which are the basic concepts of area understanding, through identify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phenomena occurring in the two areas.

One of factors revealing the characteristics of an area is its cultural landscape. Cultural landscape represents visible and spiritual interactions between nature and human and displays the traces of human life clearly, so it is worthy of learning.

Thus, in order to help learners' understanding of 'Jeju,' the present researcher's space of life, this study selected 'stone wall landscape,' a representative cultural landscape of 'Jeju,' and extracted elements of learning and produced a teaching material through comparing it with similar 'European bocage landscape.' In order to test the learning effect of the teaching material, we applied it in an actual class and surveyed the learners and participant teachers after the class.

First, in the class using the teaching material, the students understood easily the reason for many stones in Jeju by the fact that Jeju is a volcanic island with mild slopes, and the reason for the windy weather by the fact that Jeju is situated between the ocean and a continent. In addition, they learned that 'stone wall landscape in Jeju' is a result of people's adaptation to natural environment more characteristically than 'European bocage landscape.'

Second, through comparing the development of the two landscapes, the learners came to understand customs in Jeju and differences among localities within Jeju from the appearance and roles of stone walls.

Third, in the comparison of the two landscapes of today, it was found that

'European bocage landscape' was protected as its value had been recognized in historical, landscape and ecological aspects. On the other hand, 'Jeju stone wall landscape' was disappearing as its value was not recognized and it was regarded as an obstacle to farming. In comparison with 'terraced paddy field in the Philippines,' which is a world cultural heritage, as well, it was found that 'Jeju stone wall landscape' is a valuable cultural heritage comparable with the 'terraced paddy field.'

In the concluding part, the students expanded their understanding of various cultural heritages in the Jeju area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the location and region of Jeju and various features of the Jeju area observed in its stone walls.

The students who attended the class showed interest in the contents of the teaching material that compared the two landscapes and were satisfied with what they had learned newly.

As a result of the class based on a cross-area comparison, first, the students could understand the location and region of the Jeju area more eas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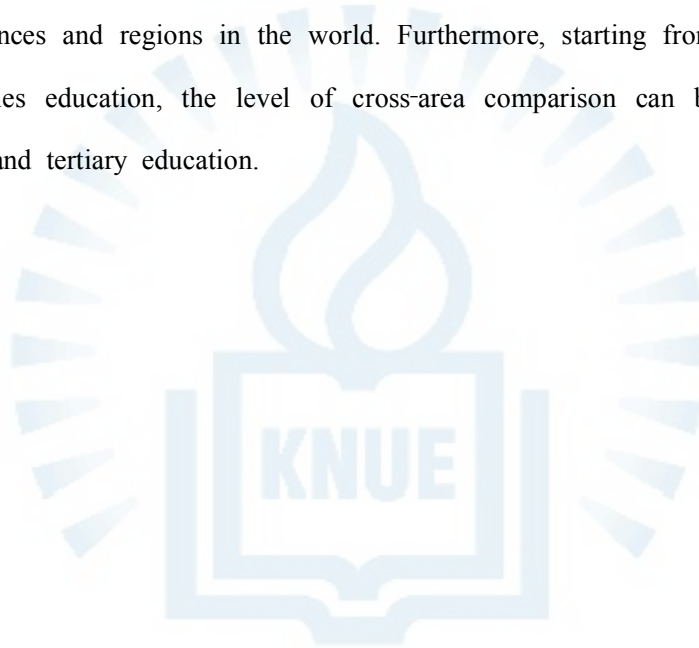
Second, although stone walls were common to the students living in Jeju, by comparing the stone wall landscape with European bocage landscape, they came to have an eye to see such a daily thing anew from a cross-area viewpoint.

Lastly, in the process of comparing 'stone wall landscape' with 'European bocage landscape,' which is regarded as a valuable cultural heritage, the students found newly the value of 'Jeju stone wall landscape' as a cultural heritage, and realized that 'Jeju stone wall landscape' is worthy of preservation as a world cultural heritage.

However, the application of cross-area comparison has limitations. Above all,

learners ha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related terms, and sufficient materials should be prepared for areas to be compared. If research is continued according to students' level, we expect that cross-area comparison can be a more systematic learning method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education.

Cross-area comparison may be somewhat difficult to 4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but if it is started from 4th graders who begin to learn their locality in earnest, they may gain an eye to understand not only their province but also other provinces and regions in the world. Furthermore, starting from elementary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level of cross-area comparison can be raised for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Social Studies Education) in February 2010.

◆ 부 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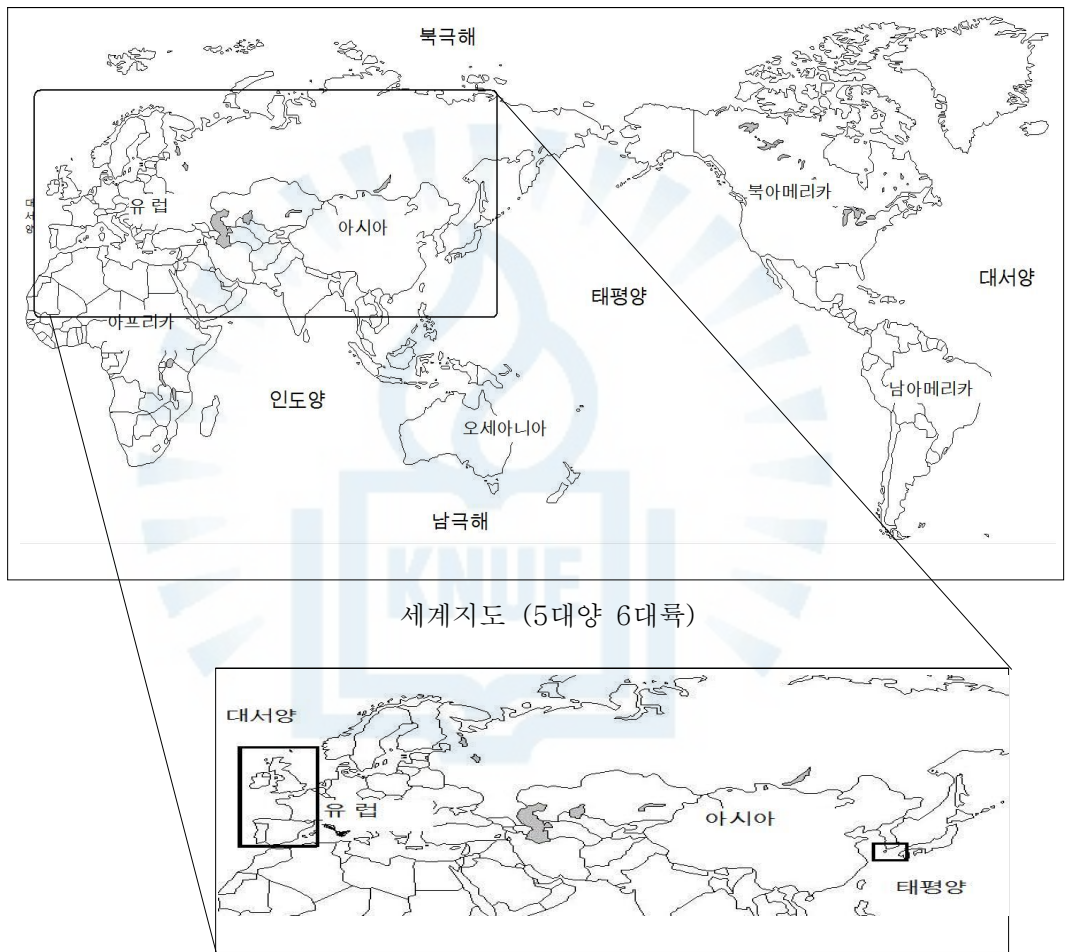
I. 학생용 워크북

주제	제재	차시	학 습 목 표
돌담을 통한 제주 지역의 이해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를 통해)	제주와 유럽에서의 올타리경관	1	제주와 유럽의 위치를 비교하고,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올타리경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형성배경	2	제주 돌담 경관을 만든 까닭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하여 말할 수 있다.
		3	
	변화과정	4	제주 돌담 경관의 형태(모습)와 기능(역할)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하여 제주 지역의 특징을 알 수 있다.
		5	
	오늘날의 모습	6	유럽 보카쥬 경관과 제주 돌담 경관을 비교하여 제주 돌담 경관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알 수 있다.
	돌담과 제 주의 지역 성	7	제주 돌담으로 알 수 있는 제주 지역 특징과 이와 관련된 제주문화를 알 수 있다.

1. 제주와 유럽의 울타리경관

※ 공부할 문제 : 제주와 유럽의 위치를 비교하고,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울타리경관의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활동 1) 다음의 지도에서 제주와 유럽지역 중 울타리경관이 나타나는 위치를 살펴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자.



유라시아 대륙(울타리경관이 보이는 유럽지역과 제주도)

우리 지구는 5대양 6대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양이라는 말은 큰 바다라는 의미로 5대양에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를 일컬으며 대륙이라는 말은 큰 땅덩어리라는 의미로 6대륙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가 속합니다. 이 중 유럽대륙과 아시아대륙을 합쳐서 **유라시아대륙**이라고 합니다.

● 제주도 서쪽과 북쪽에 펼쳐진 곳의 이름을 쓰시오 ()

● 영국의 동쪽에 펼쳐진 곳의 이름을 쓰시오 ()

● 다음 ()에 들어갈 공통적인 단어를 쓰시오. ()

- 제주도 남쪽에는 ()이 있고, 영국과 프랑스 서쪽에는 ()이 있다.

☆ 활동으로 알게 된 점

① 제주와 유럽에서 울타리경관이 보이는 지역은 유라시아대륙(유럽+아시아)의 ()과 ()에 위치하고 있다.

② 제주와 유럽에서 울타리경관이 보이는 지역은 모두 ()과/와 ()이/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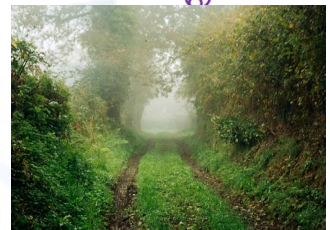
활동 2) 다음 사진들을 통해서 울타리경관의 의미를 알아보자.



제주도 밭에 있는
돌담(밭담)
제주 돌담 경관



영국(아일랜드) 돌담
보카쥬 경관



프랑스 흙과 나무로 된
울타리
보카쥬 경관

제주와 유럽의
울타리 경관을
제주 돌담 경관
과 유럽 보카쥬
경관이라고 합
니다.

● 위 4장의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울타리경관의 특징을 모두 찾아서 정리해 보세요.

● 울타리경관의 특징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리해 보세요.

- 울타리 경관이란 :

2-1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의 형성배경 (1)

※ 공부할 문제 : 제주 돌담 경관을 만든 까닭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하여 말해봅시다.

활동 1) 제주 돌담 경관을 만든 까닭 알아보자.

● 유럽 보카쥬와 달리 제주의 울타리가 거의 돌로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제주에 돌로 된 담들이 있어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읽기 자료 (1)

제주도는 예로부터 바람, 돌, 여자가 많아 삼다의 섬으로 유명하다. 특히 제주도는 돌과 관련된 관광지가 많은데 이런 관광지의 대부분이 화산활동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그리고 화산활동은 관광지만 만든 것이 아니라 제주도 땅 속에 많은 돌들도 만들었다. 그렇게 때문에 제주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 속의 돌들을 건어낼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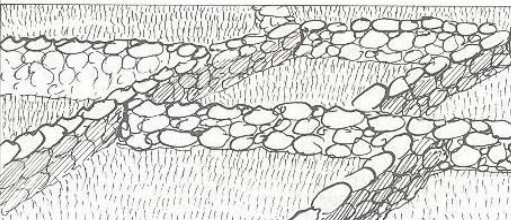
제주도의 바람은 바다를 건너오는 탓에 육지에서 느끼는 것보다 무척 세다. 그 중에서도 태풍은 제주도에 부는 바람이다. 제주도에는 바람을 막아줄 만한 섬들이나 산도 많지 않으며, 태평양과 같은 바다를 건너오는 큰 바람을 막기에는 경사가 완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흙과 씨앗이 날아가기가 쉽고, 식물이 자라는데 바람의 영향이 많았다.

● 제주사람들이 화산섬과 바다 가까이에 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제주도에서 밭농사를 지으려면 처음 어떤 작업을 해야 합니까?

● 제주도가 육지에 비해 바람이 센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야기 자료 (2)

● 제주 역사의 인물 ③ 제주 돌을 이용 밭의 경계선을 만든 판관 김 구 (金 丘)	고려시대 고종은 탐라를 제주라 고치면서 여봐라 이제부터 탐라를 제주라 부르도록 하여라.	김구를 제주 관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제주관판을 김구로 보내 고성이 되겠지만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라. 어명을 받들어 그대로 하겠나이다.
제주로 부임하자마자 김구는 제주백성들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관찰하였습니다. 제주 주민들이 가장 애로는 무엇이며 해결해야 할 사건들은 무엇인가? 예 하나씩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농민들이 제일 큰 문제는 수탈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년내내 농사지은 것입니다. 이리내봐. 이것은 내것이야. 억울하다	
그중에도 세력이 강한 부호들이 땅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힘있는 농민들의 땅을 차지하고 이를 수탈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땅이 내땅이니 이 농작물도 내것이니 이리내라. 으하하하	크게까지만 해도 밭이나 논에 경계가 없었습니다. 	
울도다! 돌을 이용하자, 이 간단한 방법을 어찌 몰랐을까. 김구는 백성들에게 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땅 경계선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자기 밭에 돌을 이용하여 경계선을 돌로 쌓아라. 아아. 그것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게 하자 각각 자기 땅마다 돌로 경계가 되어 싸움도 없어지고 농민들이 억울하 당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 제주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 김구 판관은 제주사람들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주었습니까?

☆ 활동으로 알게 된 제주도 밭에 돌담을 쌓은 이유



2-2.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주 경관의 형성배경 (2)

활동 1) 유럽 보카주 경관을 만든 까닭 알아보자.

■ 읽기 자료

인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은 미개간지, 공유지 등 공동 이용이 가능한 토지에 담이나 울타리 등의 경계선을 쳐서 남의 이용을 막고 사유지화하는 일이다.

이 운동은 모직물(毛織物) 공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모직물 공업은 영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다. 본래는 양모(羊毛)를 그대로 수출했으나 14세기 중엽부터는 양모를 가공, 모직물을 짜서 이것을 유럽 각지에 수출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모직물 공업이 특히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튜더 왕조 시기이다. 왕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산업’,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치있는 제조업’인 모직물 공업을 위해 특별한 보호정책을 썼다.

그러자 봉건영주, 귀족 등 토지소유자들은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금까지 해오던 온 농사를 그만두고 목장을 만들어 양을 기르기 시작했다. 확실히 목장은 농사보다 노동력이 덜 들고 이익도 많아 훨씬 유리한 산업이었다. 토지소유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목양업(牧羊業)에 뛰어들었다. 농경지는 물론 황무지, 공동경작지까지 울타리로 둘러쳐던 것이다.

※ 단어설명 ※

- (1) 미개간지 - 농사짓기 위해 갈지 않은 땅
- (2) 공유지, 황무지 - 손 대지 않고 놔두어 거칠어버린 땅
- (3) 사유지 -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
- (4) 공동경작지 -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농사짓는 땅

● 유럽 보카주 경관과 관계있는 역사적사건은 무엇입니까?

● 토지소유자(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들이 울타리를 둘러치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활동 2)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이 만들어진 까닭을 비교하여 보자.

	제주 돌담 경관	유럽 보카쥬 경관
땅의 소유		
걸린 시간 (< , > , =)	제주 돌담 경관 () 유럽 보카쥬 경관	
환경적 배경		

● 위 표를 통해서 제주 돌담 경관을 만든 까닭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유사점과 차이점)하여 말해봅시다.

3-1.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의 변화과정 (1)

※ 공부할 문제 : 제주 돌담 경관의 형태(모습)와 기능(역할)을 유럽 보카쥬 경관과 비교하여 제주 지역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활동 1) 두 경관의 형태(모습)에 대한 비교를 통한 제주 지역 특징

● 울타리 모양으로 직선과 곡선이 가진 의미를 알아봅시다.



곡선모양의 돌담



직선모양의 돌담

※ 참고자료 : 옛 사람들은 돌담을 쌓을 때 쓰러지지 않게 쌓기 위해 땅에 구덩이를 파서 돌담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 위에 바로 돌담을 쌓는 것보다는 주로 흙 위에 쌓았습니다. 그래서 밭에 돌이 있는 곳을 피해 돌담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농사 도구가 발달하기 시작하여 밭에 돌들을 깎 수 있게 되면서 돌담의 모양도 농사짓기 편한 직선모양의 돌담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 옛 사람들이 돌담을 구불구불하게 쌓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그럼 돌담 중 직선모양과 곡선모양 중 어떤 모양의 더 오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 울타리에 사용한 재료에 따라 지역적 특징 알아보기



제주 돌담 경관



프랑스 브레타뉴 지역
보카쥬 경관



영국(아일랜드)
보카쥬 경관

※ 참고자료 : 제주는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섬으로써 섬 전체가 돌섬이라고도 합니다. 프랑스 브레타주 지역은 돌들이 세기가 단단하고 연한 차이로 인해 흙이 치밀한 곳이다. 아일랜드는 땅이 날씨에 의해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땅 속 돌들이 갈라져서 나온 돌들로 돌담을 쌓은 곳이다.

○ 위 사진과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울타리에 사용한 재료와 지역마다의 특징을 말해봅시다.

● 울타리의 높이와 두께에 따라 지역별 특징 알아보기



대정읍 지역 돌담

한림읍 귀덕리 돌담

○ 위 두 지역의 돌담의 높이와 두께가 다른 이유를 생각하여봅시다.

()

● 제주의 풍습과 돌담과의 관계

※ 참고자료 : 제주의 옛 조상들은 큰 아들에게 대부분의 토지를 주는 육지와는 달리 토지를 모든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고, 제사도 형제들끼리 나누는 풍습이 있다. 이런 풍습 때문에 소유지가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토지의 경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이는 토지위에 돌담이 모습으로 나타나 점점 돌담의 경계도 복잡해지기도 하였다. 반면, 유럽 보카주는 양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기르기 위해 점점 울타리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다.

○ 제주 돌담 경관이 복잡해지게 된 이유를 제주풍습과 관련지어 생각하여봅시다.

()

3-2. 제주 돌담 경관과 유럽 보카쥬 경관의 변화과정 (2)

활동 1) 두 경관의 기능(역할)에 대한 비교를 통해 두 지역 특징 알아보기



유라시아 대륙(울타리경관이 보이는 유럽지역과 제주도)

※ 참고자료 : 제주도의 바람은 바다를 건너오는 탓에 육지에서 느끼는 것보다 무척 세다. 또한 제주도에는 바람을 막아줄 만한 섬들이나 산도 많지 않으며, 태평양과 같은 바다를 건너오는 큰 바람을 막기에는 경사가 완만하다.

유럽 동쪽지역(대서양과 유럽대륙이 붙어있는 곳)도 바다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이 많고, 바람을 막아줄 자연적인 장벽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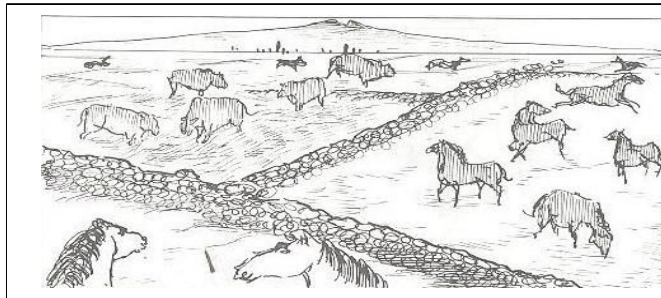
○ 두 지역에서 바람이 센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제주 돌담과 유럽 보카쥬는 바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 가축과 관련된 울타리 경관의 기능을 만화자료를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

● 울타리 경관과 관련된 지역문화

■ 읽기 자료

제주에 관광을 온 사람들이 제주가 육지와 다르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돌담이다. 왜 이렇게 돌담이 많은 것이며, 특히 이 많은 돌담을 누가 쌓았나는 것이다. 최근 제주대 고성보 교수팀이 밭돌담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 2만2천1백8km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를 약 111번 둘러쌀 수 있는 길이이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이 밭에 있는 돌담들이 한꺼번에 쌓은 것이 아니라 제주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때부터 밭주인들과 그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쌓아왔다는 것이다. 그만큼 적은 사람들에 의해 긴 시간동안 쌓아왔다는 것이다.

제주사람들은 밭에 돌담을 쌓다보니 밭 옆에 길이 없이 돌담으로 둘러쌓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길과 붙지 못한 밭주인들은 자기 밭에 들어가려면 다른 밭을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고 곡식을 수확할 때도 다른 밭을 통과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 점은 토지가격을 정할 때 영향을 주어 길과 붙은 밭은 가격이 더 높고, 돌담으로 둘러쌓인 밭은 그에 비해 가격이 낮았다. 나중에는 돌담이 너비가 넓어진 곳은 돌담 위로 다니게 되어 돌담이 농사길역할도 하게 되었다.

유럽 중 프랑스의 보카주경관은 첫째, 울타리 사이 길이 비온 뒤 진흙이 많이 쌓이는데 화학비료 없던 시절엔 파내어 좋은 거름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생울타리는 겨울에 목초가 부족할 때 가축의 사료로 도움이 되었다. 둘째, 울타리 사이 도로가 그늘지고 습기가 차며 물이 고이곤 하는 특징들이 각 농가들을 떨어지게 위치하게 하였고, 이는 존락의 산존화로 이어져 그 지역 사람들의 공동체 약화 및 개인주의 발달의 한 원인이 되었다.



제주 돌담 경관



프랑스 보카주 경관

	제주도	유럽 (프랑스)
울타리 경관과 관련된 지역문화		

4. 오늘날 경관의 모습

※ 공부할 문제 : 유럽 보카쥬 경관과 제주 돌담 경관을 비교하여 제주 돌담 경관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알아봅시다.

활동 1) 오늘날 제주 돌담 경관의 변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료1〉

돌담을 제거하여 농지(농사 짓는 땅) 반듯하게 정리한 모습	돌담 옆에 방풍림 모습
  	

〈자료2〉

2008년 5월 11일에 농업진흥지역전면해제 예정고지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발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 행위는 엄격히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전면 해제는 농지면적의 급격한 축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대부분 농지에 묶여 있던 돌담 역시 해체와 파괴가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해제되면 부동산투기나 건축개발이 이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이로 인한 농지면적의 급속한 해체와 함께 농지면적의 급속한 축소를 동반할 것이다.

세계유산 손색없는 ‘제주 돌담’, 경향신문, 2008. 06.12.

● 유럽 보카쥬 경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료1〉



프랑스 브레타뉴지방 울타리 제거된 모습

〈자료2〉

영국에서 돌담은 역사, 경관, 야생 생물 보호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돌담 제거를 바라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르투갈도 돌담과 관련한 경관구조 파괴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토지 및 문화경관계획 이 도입되어 오솔길을 차단 또는 경작하지 않거나, 들판의 돌담, 유적들을 제거하지 않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이 지불되고 있다. 웨일즈에서는 티르 사이멘(Tir Cymen) 이라는 농업-환경 계획을 도입, 주로 돌담 복구를 위하여 농장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돌담파괴의 금지들은 유럽연합 규정에 근거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에서 볼 수 있다.

활동 2) 제주 돌담 경관이 가지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 읽기 자료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협약’에서는 문화적 경관을 구상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1994년에는 문화적 경관의 개념을 도입, 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 문화유산이 예술적·인문적 수월성과 장대함을 지닌 기념물이나 무형유산을, 자연유산이 생태적·자연적 훌륭함과 과학적 가치를 지닌 대상에 치우친 것에 대한 보완으로서 인간과 자연이 결합된 결과를 문화적 경관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필리핀의 코르디레라스 다랭이논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곳은 2000년 동안 높은 산간에서 벼농사의 등고선 경작을 해 오는 곳으로 논둑을 이어 놓으면 그 길이가 자그마치 2만2400km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농업지식과 신성한 전통, 공동체적 균형이 전 세계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전승되었고,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과의 보존을 아우르는 조화로움이 표현된 아름답고 경이로운 경관을 형성해왔다. 유네스코는 이를 인정해 ‘문화적 경관’ 제1호 세계 유산으로 지정한 것이다.

필리핀의 다랭이논과 제주의 돌담은 그 자체로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면서 창조된 경관이다. 밭을 경작하는 농촌 중에서 제주의 빌레왓, 다락밭에서 구불거리며 이어진 돌담경관 등을 비교할 만한 곳이 전 세계 어디에 있을까? 제주의 돌담은 필리핀의 다랭이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규모와 경관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의 문화적 경관의 기초적 원칙에 가장 잘 부합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필리핀
계단식 논



제주 돌담 경관

세계유산 손색없는 ‘제주 돌담’, 경향신문, 2008. 06.12.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협약'에서 문화적 경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필리핀의 다랭이논과 제주 돌담이 갖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 활동으로 알게 된 점

① 제주 돌담 경관은 1960년 이후 감귤밭으로 돌담 옆에 ()이 생겼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돌담을 ()

② 유럽 보카주 경관은 한 때 없었다가 () 문제점이 발생하여 다시 만들기도 하였다.

③ 유럽 보카주 경관은 최근 들어 () 측면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유럽연합의 규정으로 돌담파괴를 금지하고 있다.

④ 제주 돌담 경관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5. 돌담과 제주 지역 특징, 그리고 또 다른 문화

※ 공부할 문제 : 제주 돌담으로 알 수 있는 제주 지역 특징과 이와 관련된 제주 문화를 알아봅시다.

활동 1) 제주 돌담으로 알 수 있는 제주의 지역 특징 알아보기

● 위치적 특징

사진자료	사진자료와 돌담과의 관계	제주 지역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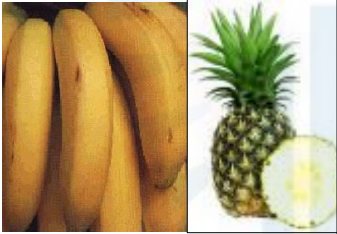
● 영역적 특징

돌담 형성 원인	제주의 지역 특징
땅 속에 돌이 많아 돌담이 많음	
바람이 육지보다 강함	

활동 2) 제주의 지역성과 관련된 다른 문화유산 알아보기

제주의 지역특징		제주도에서 이와 관련된 모습 (19쪽 제주문화의 다양한 모습에서 찾기)
위치적 특성		
영역적 특성		

◇ 제주문화의 다양한 모습 ◇

		
퐁돼지	온돌	보리
		
틔밭(우영밭)	선인장	야자나무
		
바나나, 파인애플	용암동굴	성산일출봉
		
초가집	바닷가 나무	돌하르방

II. 연구수업전 학생 반응 조사 설문지

수업 전 학생용 설문지

4학년 1반 번 이름 :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앞으로 '제주도 돌담'과 관련해서 연구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수업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세히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돌로 만들어진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물건, 문화재, 건물 등)

2. 우리 마을 또는 제주도에서 돌담을 보았다면, 어떤 곳에 돌담이 있습니까?

3. 돌담이 밭에서 많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고 돌담을 쌓을 때 사용하는 돌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밭에서 볼 수 있는 돌담은 과연 어떤 역할은 할까요?

5. 돌담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여러분이 유네스코에 편지를 쓰려 합니다. 어떤 이유로 돌담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공간이 부족하면 뒷장에 써도 좋습니다.)

Ⅲ. 연구수업후 학생·교사 반응 조사 설문지

수업 후 학생용 설문지

4학년 1반 번 이름 :

연구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가 끝난 후 간단한 느낌을 다음 항목별로 적어주십시오. 어린이들을 위한 제주도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생각이나 의견을 자세히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주도 발에 있는 돌담은 어떤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2. 제주 돌담 경관을 가지고 제주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주의 지역성(제주가 가진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제주 돌담 경관을 유럽 보카주 경관과 비교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곳을 비교해서 공부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4. 워크북을 공부하면서 제주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까?
5. 공부하는 내용이 어렵거나 지겨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6. 돌담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여러분이 유네스코에 편지를 쓰려 합니다. 어떤 이유로 돌담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7. 1학기 때 배운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 책을 공부할 때와 지금 워크북을 공부할 때의 차이점이라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8. 만약 이렇게 교과서를 만든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9. 좋았던 점과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각각 1~2가지 정도 적어주세요.

참관자용 질문지

연구수업에 참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가 끝난 후 간단한 느낌을 다음 항목별로 적어주십시오. 어린이들을 위한 제주도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생각이나 의견을 자세히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수업전에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교재, 지도안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용 워크북 :

◆교수학습 지도안 :

2. 수업시간동안 아이들이 참여하는 분위기는 어떠하였습니까?

3. 학습하는 내용은 어떠하였습니까?

(내용이 어렵다, 외울것이 많다, 흥미롭다, 등등)

4. 1학기때 배운 아름다운 제주도 책을 공부할 때와 지금 워크북을 공부할 때의 차이점이라면 어떤 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5. 좀 더 연구하여 아이들에게 맞는 교과서를 비교지역과 문화유산의 가치 중심으로 만든다고 할 때 참고할 만한 조언을 적어주십시오.

6. “지역학습에서 지역을 비교해 보면 지역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 라는 생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